



시흥문화

Siheung Culture

Vol.14 2011







발행일 2012년 1월 발행인 정성중 발행처 시흥문화원 시흥시 하중동 875-1 조은프라자 4층 T. 031-317-0827 기획편집 코인뱅크 T. 031-404-3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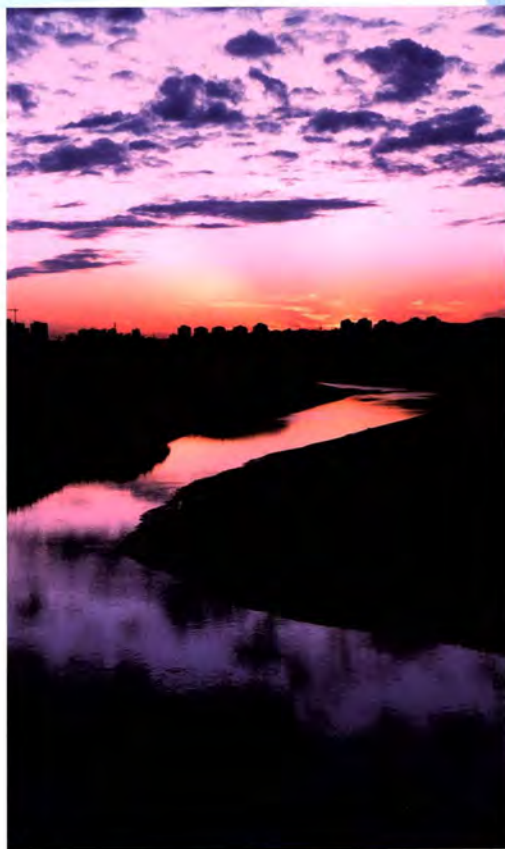
※ 이 책은 시흥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갯골길

모새달이 사각이며
하늘하늘 춤춘다
만추의 햇살 받아
붉은 치마 두른 칠면초
망중환을 즐기는
망둥이들의 몸짓
올록볼록 집을 짓고
왕발 들고 들락이는
게들의 대향연
갯골을 두리번거리며
먹이 찾는 못새들
말발굽 토닥이는 소리
멀리서 들려 올 때
고추잠자리 꼬리에
가을이 내려앉았다
저녁노을에 비친
연인들의 타박걸음이
한 폭의 수채화가 된다

문도진

시집 '소리가게' / 소래문학회원



『시흥문화』는 시흥 역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14호 시흥문화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간되었습니다. ‘시흥문화’는 문화원의 역사와 함께 걸어오며 그 자체가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지나온 흔적의 소중함에 무엇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문화원으로서는 그래서 더욱 시흥문화 발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흥문화 발간사업이 올해 본예산에서는 삭감되고 발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사회단체지원금에서 보조를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시흥문화 14호가 나오기까지 힘과 마음을 나누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한해를 보내고 맞는 시점에 다사다난했노라고 말합니다만, 2011년 문화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새로운 배움과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존 전승 및 선양사업 외에도 다문화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어르신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로 의욕만큼 사업성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디딤돌이 되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다하지 못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내년에는 한층 성숙한 문화원의 이미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일 년을 만들겠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은 흑룡의 해로 모든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의 계획과 소망이 풍요롭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며 ‘시흥문화’ 14호 제작에 참여하시고 귀한 내용을 담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시흥문화원장 정 상 종

우리것 찾고 지키려는 노력의 결실



시흥문화원의 『시흥문화』 제1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 지역 고유문화의 전승 및 지역 문화행사 개최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상중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의 향토, 역사, 지리 등을 계승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재조명하며,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각종 추진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자기 변화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흥문화』 제14호는 우리 것을 찾고 지키려는 문화원의 노력과 결실이 모두 담긴 책자인만큼 안으로는 문화원의 발전을 되새기고, 밖으로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흥문화』 제14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2012년 1월

시흥시장 김 윤 식

시흥 전통문화 가치와 경쟁력 제고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흑룡띠의 해! 2012년 임진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시흥문화』 제14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아름다운 시흥문화를 꽃피우고자 힘쓰고 계시는 정상중 시흥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시흥문화』 제14호가 발간되기까지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문화원은 우리 시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활동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시흥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 드립니다.

용기와 희망이 있는 임진년! 용솟음치는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하시는 일들과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시흥시의회의장 장 재 철

Contents

사진으로 보는 시흥문화 10

특별기획

거리, 문화를 입다 19

시흥의 거리 21

거리는 판타지다 24

거리는 생활이다 26

문화의 거리에 바란다 28

문화의 현장

시흥상여소리 31

군자봉성황제 40

동감 & 동행

결혼이주여성 양계영, 이금희 씨 45

우리집에 와줘서 고마워! 48

문화 & 공간

새우개마을 민속극 공연을 마치고 5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58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60



Culture & People

서양화가 이선영	63
소래문화회	66
연극동아리 '앵서스'	68
UCC동아리 '오렌지 나무'	70

시흥 리포트

도서관 희망씨	73
희망마을 사업	76
시흥시 사회적기업	80

문화탐방

고려의 숨결을 느끼려 떠난 '1박2일'의 여정	85
---------------------------	----

Issue 교육자 최금렬 선생	90
------------------	----

문화칼럼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지 마라	94
----------------------	----

단오제 & 연성문화제 기념글짓기	96
-------------------	----





세계를 향한 거룩한 신고식

'2011년 성년의례'

만 20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의례가 5월 14일 소산서원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사진 최영숙



옛 문화를 향유하며 전승하는

‘단오제’

음력 5월 5일, 고유명절 중 하나인 단오의 의미를 되살리는
전통문화축제가 비둘기공원에서 6월 4일 개최되었다.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도 내 28개 시군 전통민속 예술이 한 자리에 모인 한국전통 축제 한마당, 양주
별산대놀이마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시는 ‘시흥상여소리’로 출전하였다.



시흥시 문화예술의 진수

‘연성문화제’

연성문화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흥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전통축제이다. 관곡지, 소산서원, 청소년수련관, 옥구공원 일원에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잊혀져가는 전통이 되살아난다

‘군자봉성황제’

군자봉성황제는 매년 음력 10월 3일 군자봉 정상 성황사에서 열린다. 성황제의 대상은 경순왕 김부대왕. 천년의 전통이 깃든 군자봉성황제는 시민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한다. 2011년에는 10월 28일 유가행렬을 시작으로 10월 29일에 개최되었다.





성황제 제물로 쓰이는 생돼지와 소머리. 예전에는 반쯤 익혀 사용하지만, 지금은 고기를 익힐 솥이나 장소, 사람이 없어 생돼지를 사용한다. 수컷 돼지이며 한 마리를 통째로 쓰기에 '웬돼지'라고 부른다.



단오제 기념 학생미술대회 수상작품

〈초등부 대상〉



단오굿

월포초 2학년 김건우

〈고등부 대상〉

〈중등부 대상〉



새우개장승놀이

신천중학교 3학년 김미림



은행고 2학년 박지원

연성문화제 기념 학생미술대회 수상작품

〈초등부(고) 대상〉



염전에서 소금 얻기

진말초등학교 5학년 정수진

〈초등부(저) 대상〉



월미두레풍물놀이

진말초 2학년 윤지호

〈중등부 대상〉



새우개장승놀이

응곡중학교 고아라

특별기획

거리, 문화를 입다
시흥의 거리
거리는 판타지다
거리는 생활이다
문화의 거리에 바란다

글 유서원 사진 김성한



거리, 문화를 입다



거리가 달라지고 있다. 도로, 가두, 시가 등과 비슷한 단어로 분류되는 거리는 그러나 이들과는 다른 '감성'을 지닌다. 거리를 소재로 한 가요들도 심심찮게 만들어진다. 거리는 생활상, 추억 등 특정 지역과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 通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해 시장통, 종로통 등으로 거리 이름을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서양문화가 유입되면서부터는 전국 각지에 로데오거리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런 거리가 또 한 번 탈바꿈하고 있다. 새로운 거리문화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개성 있고 아이디어 번뜩이는 곳이 많다. 거리는 이제 인물이나 역사, 예술과 결합하는가 하면 경제, 환경, 음식과도 조우한다.

'거리극 축제'라는 이름으로 거리 곳곳을 이동하며 공연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곳이다. 안산시는 매년 5월 안산거리극축제를 열고 있으며 과천시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치러온 지역축제에 일찌감치 거리극을 도입했다. 안산은 2011년 축제 슬로건을 "거리에서 꿈꾸는 행복"으로 정하고 도시의 거리 속에서 사람과 건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표방한 바 있다. 과천은 축제와 연계해 「거리예술」이라는 웹진을 지속적으로 발행한다. 재단법인 과천한마당축제는 웹진을 통해 "거리예술은 관중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창작하는 것"이라며 거리와 예술, 그리고 지역의 3자 관계를 얘기한다. 즉 거리예술은 멀리 있는 관중을 불러 모으기보다는 그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서울 강남은 '거리도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쾌적하고 편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요, 예술적 감성까지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빛의

거리 강남대로'를 표방하고 있는 강남구는 거리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미디어 중심으로 통합했다. 가로등, 인포부스, 시설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해 미디어풀을 설치한 것. 강남대로의 차도 면과 인도면에 각각 LCD와 LED 두 대형스크린을 12.4m 높이로 22개 세웠다. 대형스크린에서는 국내외 유명작가부터 주변 대학의 예술전공 학생들 작품까지 상영한다. 미디어풀에서는 교통이나 지역정보, 실시간 뉴스 등 각종 정보검색이 가능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내장된 카메라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다.

이처럼 거리 시설물에 첨단 IT기술을 도입한 것은 삭막한 빌딩 숲을 걷는 보행자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이 걷고 있는 거리, 도시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유도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도 있지만 상업적 목적도 존재한다. 미디어풀에서는 기업체의 이미지 광고와 서울시의 시정광고, 방송국 프로그램 안내 등도 제공한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거리조성 사업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반면 그동안 무계획적인 개발이 진행된 도시에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개선의지가 불러 온 긍정적인 변화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거리의 변신은 무죄지만 그 거리에 존재하는 사람 및 사물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시각, 편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창조도시」의 저자 찰스 랜들리는 “미래 도시일수록 과거에서부터 계획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첨단 IT기술이 접목될 예정인 군자신도시(조감도)



시흥의 거리

신천동 문화의 거리

1996년 문화의 거리로 명명됐지만 이름에 걸맞은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신천동 문화의 거리도 새해, 변화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하고 간간히 한자리에서 수십 년이 넘게 장사를 해 온 오래된 이발소와 세탁소, 식당 등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나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에서도, 중심상권에서도 멀어져 아쉬움을 줬던 신천동 문화의 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곳을 상권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뱀내장의 명성을 이어 받아 한 때 상권 중심지였던 이곳이 시청 이전, 은행동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문화의 거리에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및 간판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토대로 거리 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곳을 30~50대 및 그 가족들이 함께 즐길만한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또 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 점을 감안해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정왕동 로데오거리

길 좌우에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의류 매장이 집단으로 들어서서 붙여진 이름, 로데오거리. 우리시에도 로데오거리가 있다. 정왕역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이의 보행통로에 정왕동 로데오거리가 있다. 상인들 말에 따르면 조성 당시에는 음식점이 많았는데 하나 둘 옷가게가 늘어나면서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한다.



정왕동 로데오거리에는 의류 상가가 40여개 쯤 된다. 큰 상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인들은 이곳이 시화지구에서는 유일한 의류 중심상가라고 말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많으며 30~40대 주부와 직장인, 그 자녀들인 중고등학생이 주 고객이다. 8년 전부터 이곳에서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은주 씨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미시족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직장인들 퇴근시간이 가장 바쁘다”고 말했다. 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아쉬움 중 하나는 대학생들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거리지만 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류 구입은 거주지 근처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곳만의 경쟁력, 특별함을 갖추지 못했고 대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오이도 음식문화거리

바다를 마주보고 수많은 횡집들이 늘어 서 있는 오이도 음식문화거리,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양주골 한우마을,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등과 함께 경기도 지정 음식문화 시범거리 중 하나다. 도는 음식점 밀집지역 중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음식점 거리를 선정해 음식문화 시범거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장려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오이도 음식문화거리는 활어회와 조개구이, 칼국수 등 푸짐한 먹을거리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오이도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조가비축제를 비롯해 설날 큰잔치, 낙조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르지 못했다.

시는 지난 12월 ‘오이도 지역특화 발전특구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미 정부 사업인 해안가 명소화 오션 프런트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오이도 관광객 증가를 위해 정부로부터 특구지정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보다 개선된 식단과 서해의 낙조, 빨강등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오이도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오이도 해안가 거리도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로 재탄생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거리는 판타지다

부천 만화특화거리

‘만화도시’를 표방하며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왔던 부천이 이번에는 북부역 광장에 만화특화 거리를 조성 중이다. 부천 북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한 부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천시는 이곳을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무한 상상이 가득한 거리’로 꾸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만화특화거리는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벽화와 만화 픽토그램(사물·시설·행위·개념 등을 상징화 한 그림문자로 나타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 상징문자) 등을 건물 벽면과 상가 간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370m에 해당하는 만화특화거리 내 상점은 21개 업종, 약 178개이다.

기존의 직선으로 뻗은 보·차도를 인조 화강석을 사용해 곡선으로 표현하고 만화특화거리 입구에는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의미하는 관문과 미디어폴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천시는 근본적인 거리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어지럽게 난립한 전력선과 통신선, 전신주들을 지중화 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이미 지난 8월 지중화 사업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또 만화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만화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 상가 건물주 및 영업주, 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지역주민협의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정책과 연계해 원미구는 부천역에서 준의4거리 사이에 위치한 노후한 버스매표소, 구두수선소 14개소에 만화캐릭터를 그려 넣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도로시설물에 새로운 이미지를 입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부천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도시이미지 변화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잘 보여준다. 부천은 국토해양부가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1년 도시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을 수상했다. 대통령상 수상 도시에는 최고 500억 원이 지원된다. 문화도시 부문에서 확실한 정체성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만화특화거리 조성 역시 부천시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거리는 생활이다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관악산 줄기와 삼성산에 둘러싸인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는 국내외 작가들의 예술작품 52점과 100여개의 음식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예술작품과 음식점이 한자리에 있는 풍경을 언뜻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는 깔끔하면서도 개성 있다. 계곡을 따라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음식점과 예술작품이 서로의 분위기를 조금씩 흡수해 접점을 찾아낸 느낌이다.

한식·중식·일식·양식당 등 이곳에 있는 음식점들은 여느 곳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프랑스 작가 디디에를 피우자 파우스티노의 설치작품 '1평타워'를 시작으로 음식점 사이사이, 혹은 그 위쪽에 자리 잡은 예술작품들로 인해 이곳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공간을 뛰어 넘는다. 그렇다고 고상하지는 않다. 산 밑 동동주 집 스피커에서는 트로트가 요란하고, LP를 틀어주는 카페에서는 통기타소리 잔잔하다. 이곳의 거리는 '생활'이다.

산행을 하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이 거리를 찾은 사람들은 주차를 하고 바로 산으로 향하거나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늘다락방, 물고기 눈물분수 등 이름도 독특한 예술작품들을 속에서 '놀고 간다'. 곳곳에 작품이 설치돼 있으니 거리를 한 바퀴 빙 돌아 산책하게 된다.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가 특별한 공간이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이곳의 옛 이름은 안양유원지로 70년대까지는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을 자랑하던 곳이지만 계곡주변에 무허가 음식점들이 무질서하게 형성되면서 환경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해 이곳을 변화시키고 명칭도 변경했다. 자연과 예술, 음식과 추억을 하나의 거리에 모두 담아보겠다는 취지였다. 안양시는 지역환경과 특색을 살린 건강한 음식문화거리 조성이 생활 속의 문화예술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충분조건



글 김상신(시흥YMCA 생협 상무이사)

최근 몇 년동안 사람의 보행환경, 일명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보행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공사가 유행처럼 번졌다. 인도의 보도블럭은 다시 뜯어 고쳐치고, 횡단보도도 아스팔트에서 보다 고풍스럽고 묵직한 돌들로 교체되는 모습도 본다. 조경수가 새로 옮겨 심겨지고, 여러 모양의 벤치와 조형물들로 거리가 새롭게 꾸며진다. 또 거리 가운데의 넓은 공간에는 분수가 조성되기도 하고 보행로 한가운데를 파헤쳐 물이 흐르는 돌 개천을 만들기도 한다. 디자인거리, 특화거리 등 여러 이름의 거리와 광장이 새로 생겨난다.

보행로를 새롭게 가꾸는 것은 그동안 자동차에 길을 내주고 도로에서 소외되어왔던 사람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길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그저 전시성 사업에 그쳐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되어 버린 사례를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연 ‘걷고 싶은 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물론 ‘길’은 사람이 다니고 활동하기에 편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만드는 토목조성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거리’나 ‘광장’은 단순히 기획된 토목공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북적이던 우리네 옛 골목길을 되돌아보면, 길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고, 마을 어른들이 함께 만나고 이용하는 공동의 마당이었다. 오랜 수령의 마을 어귀 큰 나무그늘은 집 안에서는 찾기 힘든 가장 시원한 쉼터이기도 했다. 우리네 사람들의 일상 생활방식이 ‘마을길’과 ‘마을공터’를 북적이게 했던 것이다.

‘거리’나 ‘광장’은 우리들의 일상생활방식과 문화, 역사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 삶의 산물이다. 따라서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 사업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되어야 하고, 또 ‘거리’와 ‘광장’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생활변화가 있어야만 완성된다. ‘걷고 싶은 거리’ 가꾸기에 있어서 환경조성을 위한 토목사업이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즘 이곳 밤거리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로 북적댄다. 거리 곳곳에 서서 또 여러 모양의 긴 의자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청소년들의 모습, 광장에 세워진 농구대에도 밤늦도록 활력

이 넘친다. 여럿생긴 커피전문점과 호프집에서도 젊은 층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말에는 어린이들의 벼룩장터가 펼쳐지기도 하고, 다양한 작은 공연과 거리행사는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넓게는 대야오거리의 포도탑로터리에서 은행택지의 대우1차아파트까지, 좁게는 시흥시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뻗은 넓은 보행거리의 모습이다.

수년전부터 이곳을 청소년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시도들이 있었다.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많고,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시흥의 대표적인 청소년 밀집지역이다. 거리 가운데 넓은 공간에 청소년을 위한 작은 거리공연장도 만들고, 주말을 이용하여 '차없는 거리' 청소년 기획행사도 펼쳤다. 하지만 이 거리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곳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또 학원으로 오고가는 청소년들은 많았지만, 평일의 밤거리에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머물고 노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리의 밤은 청소년과 젊은이의 활력으로 넘친다. 자치단체에서 이곳에 조성한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의 컨셉이 청소년과 젊은 층에 맞춰져있는 것도 아닌데, 이곳의 밤거리는 젊음의 거리로 활용되고 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추정해본다. 은행택지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된 후 이주해온 주민들이 오래 거주하면서, 어렸던 자녀들이 이제는 청소년과 젊은이로 성장해 내가 커 온 이 공간을 익숙하게 이용하게 된 것이 하나의 까닭이 될 수 있다. 또 교육정책의 변화로 반강제의 야간자율학습이 누그러져 청소년들에게 조금은 여유로운 저녁시간이 생긴 것도 이유일 것이다. 지역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외지로 학교를 다니거나, 외지에서 시흥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낮아져 주거와 학교 공간이 같아진 것도 이곳 밤거리에 머무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게 된 이유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어난 여건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생활양식 변화가 이곳을 청소년과 젊은이의 거리로 변화시켰다. 어쨌든 청소년과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는 이곳의 밤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활력을 더해준다.

이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의 2단계 기획이 필요하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곳의 '거리'와 '광장'을 둘러싼 생활양식에 밀접하게 기반한, 또 그곳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태주는 세밀한 '거리 가꾸기' 사업이 기획되어야 한다.

삼미시장과 도일시장 주변의 거리와 광장, 정왕역에서 대학가로 이어지는 거리, 제법 크게 자란 나무들로 운치가 있는 바람길 산책로, 여러 아파트단지로 이어져 생활공간으로 사랑받는 정왕동의 보행로...

시흥 곳곳에 여러 이름으로 기획되어 조성된 거리와 광장들이 각각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의해 채워지고, 또 다시 기획으로 보완되어 진정 '걷고 싶은 거리'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화의 현장

시흥상여소리
군자봉성황제



PRODUCTION
DIRECTOR
CAMERA
DATE





시흥상여소리

경기도민속예술제 민속상 수상

글 정원철(시인)

2011년의 첫날은 상여소리 공연 구상으로 시작하였다

2011 신묘년에 들어설 때에 다이어리 속의 일 년 계획에는 5월 15일의 국립민속박물관 시흥상여소리 공연이 유난히 크게 쓰여져 있었다. 아마도 일시와 장소가 결정된 공연에 참여할 인원의 확정 및 자금조달이 불투명한 걱정으로 더욱 크게 보였을 것이다. 상여소리 공연의 참여 인원이 최소 40명은 되어야 하나 봉사 인원 확보가 쉽지 않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관련 소품 구입은커녕 공연 당일 비용 충당도 어려운 때문이었다. 지난 해 국립민속박물관에 공연신청할 당시에 박일엽 선생이 걱정하였으나 시흥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提高)하는 일이니 누군가 후원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였기에 나는 부담이 더 컸다. 그동안 공연 활동을 하면서 후원처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후원 활동을 강화할수록 작품의 성실도가 떨어진다'는 나의 지론을 꺾고 몇 군데 타진을 하기는 했으나 선뜻 들어주는 단체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후원처 물색이 무위로 끝나면서 보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치밀한 구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5월 15일 국립민속박물관 시흥 상여소리 공연

국악인 박일엽의 이름으로 신청한 국립민속박물관 〈시흥 상여소리〉 공연이기에 선소리 메기기는 박일엽 선생이 하기로 하였다. 50년 가까이 국악인으로 지나면서 자신의 상여소리 운율을 소장한데다 시흥의 상여 선소리꾼 방연근, 김인삼, 신현돌에게서 익힌 시흥 상여소리를 이미 문하생에게 전수하고 있는 터이며 여자 상여소리꾼을 선보이는 것도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었다. 회다지소리는 김인삼 어르신에게 부탁하였다.

발족은 하였으나 회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시흥시 회다지소리보존회〉이기에 박일엽 선생의 문하생과 월곶문화센터, 정왕4동 문화센터 국악교실의 제자들에게 공지하여 45명으로 공연준비를 하였다. 상여 운구는 앞뒤로 남자 4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6명은 여성으로 배치하였는데, 선소리를 여성이 메기므로 후렴을 여자들이 받는 것이 음높이가 맞는 고로 오히려 잘 되었다.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중심 콘텐츠로 하였으니 의당 운구행렬이 따라야 한다. 선비의 장례식으로 콘셉트를 설정하여 1회용 꽃상여를 준비하고, 행렬의 제일 앞에 방상시를 세우고 이어 명정 공포, 영요를 세우고 선비 운구시에만 함께하는 운삼을 상여 양 옆으로 세웠다. 또한 만장기를 8개 세워 선비의 운구답게 보이도록 준비하였다.

공연 전체 프로그램 구성은 예술로 승화시킨 장례식 개념으로, 회심곡을 공연의 첫머리에 두어 부모님의 별세를 슬퍼하는 효심을 드러내고,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인 고복(초혼)과 출상 전 발인제를 지내고, 운구 중 노제를 지내어 극적 효과를 더하도록 하였으며 진혼창작곡 어화너 제창을 끝에 두었다.

봄꽃이 한창인 5월 중순의 일요일 하오 2시부터 4시까지의 국립민속박물관은 관광객이 넘쳐난다. 1000여명이 넘는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상여소리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회심곡으로 시작할 때엔 관중들 모두 숙연해졌으며 김인삼 선생이 고복(梟復)을 할 때엔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발인제와 노제에서 축문을 읽는 소리 역시 외국관광객은 물론이고 내국인들도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축문의 억양에 따라 고개를 주억거리며 듣는 모습에 출연자들 모두 신났다. 특히 박일엽 선생이 상여 위로 올라가서 요령을 흔들며 선소리를 메기는 장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시신 매장 후의 회다지 시연 때의 봉(棒)을 든 8명의 여인네들이 보여준 회다지 동작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외국의 관광객과 국내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시흥시 전통의 상여, 회다지소리 및 장례풍속을 소개하였다.

공연을 무사히 마치는 데는 여러 사람의 성의가 힘을 발휘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민속한마당 출연 단체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15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후원단체가 없다 보니 〈시흥 상여소리〉 공연에 소요된 총비용 700만원 중 나머지 돈은 〈시흥회다지소리보존회원〉의 각출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모두 박일엽 회장의 몫으로 메웠다. 문하생 모두가 성의를 보태었는데 그 중 꽃상여 한 대 값을 찬조한 문하생이 있었고 항시 내 곁에서 문학활동을 돕는 제자 한 사람도 마음을 더 하였기에 외로움이 덜어졌다. 특히 발인제와 노제에 올릴 제수(祭需) 준비는 박일엽 문하생들이 공연 전날 직접 조리하였는데 애쓴 이종숙 총무와 문하생들에게 감사하다. 또한 시흥 상여소리 공연 버스에 동승 취재하여 기사화해준 주간시흥의 파스한 관심 역시 외로움을 더는데 큰 힘이 되었다.

옛 풍속으로 하자면 여자들은 장례의식에서 열외였으나 전통문화의 재생에는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더욱이 무대에서 선소리를 여성국악인이 메기고 상여를 메는 데도 여성 국악인



들이 참여한 것은 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국악인들에 의해서 계승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시흥시 회다지소리보존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출전 결정

4월 어느 날이었다. 각 동별 축제 보조금 심의 건으로 시청 축제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연후에 식사 자리에서 꼭두쇠 김원민 단장이 민속예술제 출전 건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다. 상여소리로 출전해 보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권유에 제대로 답도 못하였는데 5월 11일 시흥문화원 2차운영위원회의 석상에서 정상중 문화원장께서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시흥시 대표팀으로 박일엽 선생이 이끄는 시흥시 상여소리팀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셨고 운영위원 7명 모두 동의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출전하게 된 논의의 시작점이었다. 나는 그 논의 결과를 박일엽 선생에게 전하고, 국립민속박물관 공연을 마치자마자 박일엽 선생 문하생들에게 경기도민속예술제 출전 건을 공지하며 협조를 구하였다. 공연 며칠 뒤 김인삼 선생을 방문하여 출전 의사를 타진하였더니 한 마디로 거절하신다. 국립민속박물관 공연을 마치고 몸져 누우셨다면서 뇌출혈로 두 번 쓰러졌었기에 건강이 감당하기 어렵다 하신다. 79세 고령이니 틀린 말도 아니기에 이번에도 박일엽 선생이 상여소리를 메기기로 작정하고 가끔 안부 전화 드리며 기다렸다.

경기도민속예술제, 무엇하나 사전에 준비된 것은 없었다. 박일엽 선생도 경비를 자부담해

야 하는 대목에 이르면 회의적 표정을 보이곤 했다. 우리 팀은 삼년 동안 시흥 상여소리 공연을 해 온 팀이라는 전적 하나만이 확보된 자산이었다. 6월 2일, 김인삼 선생 댁을 방문하니 선생은 건강이 좋아 보이시고 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의욕을 보이신다. 박선생과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어 삼년간 상여소리 공연의 최종마무리로 생각하고 자비를 들여서라도 좋게 마무리 짓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출전 주체세력의 규합부터 출발하였다.

6월 8일의 시흥문화원 3차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이사회에 시흥시 회다지소리보존회의 민속예술제출전 권을 부의하기로 의결하고는 드디어 6월 24일 시흥문화원 이사회에서 출전 승인하였다. 이제 회원에게 상여소리를 지도할 박일엽 선생과 선소리를 메길 김인삼 선생, 그리고 기획과 연출을 맡을 삼인의 골격에 10월 1일 출전까지의 3개월여의 시간과 시도 보조금 1000만원을 활용하여, 살을 붙이고 피를 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했다.



상여 및 방상시탈 제작

7월 17일 일요일 아침 우리 부부는 부산하게 외출준비를 하였다. 방상시탈 제작자인 신정철 선생을 찾아 제작소를 다녀왔다. 긴 시간 이야기 나누었다. 정확한 고증을 거쳐 제작하겠다고 하며 의욕을 보이는 신선생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차중에 신정철 선생의 전화를 받았다. 작품값이 기백만원 되지만 120만원에 해주겠다 하신다. 고마운 일이다.

시흥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여 제작자인 천안으로 차를 돌렸다. 어차피 방문해야 할 곳이니 나선 길에 찾아갔다. 김석도 할아버지를 만났다. 올해 75세인 김옹에게 마지막으로 작품 하나 남기는 마음으로 상여 하나 제작해 달라며 운을 떼었다. 선생에게 민속예술제 지원 경비 총 1000만원 예산에서 상여 임대비용으로 200만원 밖에 지출 할 수 없으니 제작하여 임대해 주기를 애원했으나 결과는 거절이었다. 제작비가 700만원이나 하는 상여를 제작해서 빌려주면 나중에 누가 그 상여를 사가겠느냐는 것이다. 보증금 200만원을 별도로 예치하였다가 상여를 돌려줄 때 도로 찾아가는 방안을 재차 제시하였으나 역시 씨도 안 먹힌다. 결국 성과 없이 시

흥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상여 제작소에 관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알아보았으나 여전히 상여 제작 가격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었다. 다시 천안 대경 김석도 옹에게 전화를 했다. “어려운 입장이니,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들여 놓고, 상여를 받는 날 임대료로 200만원을 드리겠다. 만일 사용 중에 상여에 흠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별도 변상하겠다”며 제작 임대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 자식 같은 국악인이 애쓰는 것이 가없어서인지 상여를 제작하여 임대해달라는 유례없는 부탁에 결국 승낙하였다. 판매가 700만원의 상여를 200만원에 제작하여 임대해 주겠다는 응락을 받은 것이다.

시흥 상여소리 고증

시흥시 상여, 회다지소리 채록 및 연습의 세월을 보내고 무대에 공연으로 올리기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토박이 소리꾼 월곶동 방연근 선생, 방산동 김인삼 선생, 금이동 신현돌 선생의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 채록을 마치고 연습을 거쳐 2009년부터 매년 무대에 올리다가 금년 5월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국내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까지 공연을 하기에 이르렀다. 3년의 세월을 통하여 상여행렬 장비 및 순서, 회다지 동작 익히기 등 상례 지식을 단계적으로 축적해왔기에 다소의 자신감도 생겼다. 그러나 시흥시 상여소리로서 손색없는지 여부를 평가받기 위하여는 학자들의 고증이 필요하였다.

양종승 박사(경기도문화재위원)에게 상의 드리니, 캐히 맡아주신다 하여 그간의 활동 및 채록 자료를 모두 송부하였다. 채록한 사진, 동영상, 악보화한 자료, 가사 채록한 것, 공연 팸플릿, 공연 사진 그리고 관계자들의 이력서와 주민등록 등, 초본까지 요구하신다. 서류 준비도 쉽지 않았으나 삼년간 지나온 세월의 기록을 취합하는 며칠의 작업 끝에 7월 14일 일차 방문 전달하였다. 양종승 박사는 상여소리나 회다지 소리는 마을에서 하던 대로 재현하는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니 상여 행렬 준비에 충실하기를 당부하신다. 일례로 방상시 제작도 고증에 입각하여 제작하고 상여 역시 가급적이면 전통 목상여 제작을 권하였다. 회다지 동작에 사용하는 연춍대 역시 산에서 구한 나무로 하고 만장기도 대나무를 사용하고, 만장기 역시 옛스러운 느낌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시니 과제가 끝났다. 가히 탐험에 준하는 길이다.

9월 1일 다시금 양종승 박사가 근무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다녀왔다. 상여소리 출전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했다. 프로그램 검증 결과 출전 프로그램 중 첫머리에 세울 깃발을 세 사람으로 세우는 것과 방상시의 몸동작은 느리게 덩더쿵 삼박으로 하라는 주문을 하신다. 외나무다리 구조물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점,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는 김인삼 선생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등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상여 행렬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의 순서에 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주셨다. 그제야 민속예술제 출전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을 마쳤다.



출전인원 80명 확보하기

지난 5월 15일 국립민속박물관 시흥 상여소리 공연 때에는 상두꾼 10명, 만장기 8명, 여요 2명, 명정·공포 각 1명, 운삽 2명, 방상시 2명, 회다지 8명으로 상여 팀을 꾸렸었다. 공연 출연자만 35명인데 스텝을 포함하여 40명의 대 식구였다. 10월 1일 경기도민속예술제 대회 참가는 소리꾼 1명, 북잡이 2명, 상두꾼 24명, 방상시 2명, 명정·공포 각 1명, 여요 2명, 운삽 2명, 만장기 20명, 회다지꾼 8명, 상주 7, 마을사람 5, 스텝 7명으로 총 82명이나 된다. 간단히 계산하여 5월 공연에 40명을 더하면 된다. 하지만 계산이 그리 간단치 않다. 국립민속박물관 공연에 참여한 인원들은 자발적인 참여자였는데, 상여소리를 좋아하여 참여하였다기 보다는 스승과 제자 간에 협조 체계에서 인사차 참여한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8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야 했다. 그들이 다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상두꾼을 비롯한 40명의 인원은 외부에서 충원해야 한다.

박일엽 선생과 나는 시흥시민에게 공지하여 출전희망자를 뽑기로 하였다. 외지인이 토박이 보다 많은 시흥시의 인구구조상 외지에서 유입해온 시민들이 시흥시 향토문화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 시민통합의 주요한 방안이기도 하고, 자연 부락의 해체와 상여 메는 전통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에 시흥시 전역으로 홍보하여 참여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치 있는 전통 상여소리를 오래 보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일차 문화원 통신망을 통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시흥시 상여소리 출전에 참여할 인원 모집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접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상은 파스하지만 멀고, 현실은 가혹하며 안타까웠다.

신현동주민센터를 찾아갔다. 황규현 사무장을 만나 상여소리 상두꾼 인원 확보를 부탁하였다. 마침 방산동 방골이 고향이라는 황 사무장이 추봉호 방산동 청장년협의회장을 소개해 주어 8월 29일 9명의 방산동 청장년회 회원들과 정왕동에 있는 <시흥시 회다지소리보존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인삼 선생과 김수경 문화원 이사와 함께 민속예술제 출전 개요를 설명해 주고는 9월 1일(목) 방산동 마을회관에서 다시금 회동하기로 하였다. 9월 1일, 오후 5시에 삼미시장에 들러 막걸리와 머릿고기를 사들고 마을회관을 찾으니 이십여명의 청장년회와 부녀회, 노인회원들이 우리를 반겼다. 민속예술제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모두 함께 대회에 출전하여 시흥시 상여소리를 대내외에 알리자고 당부하였다. 다행히 모두 동의해 주어 김인삼 선생이 선소리를 매기면서 약 한 시간에 걸쳐 상여소리를 연습하였다. 대회 참여인원 80명 확보, 그 중에서도 상두꾼 24명의 확보는 참 길고 긴 여정이나 그래도 이력저력 인연이 닿아 상두꾼을 확보하였다. 9월 18일, 25일 '소래정'에서 전체 출전자들이 모여 실제 상여를 메고 발 맞추고 출전 연습을 하였다.

10월 1일 경기도민속예술제 출전

10월 1일, 드디어 민속예술제 출전 날이다. 스텝과 시청, 문화원 관계자를 포함하여 모두 85명의 대단위 팀이었다. 월곶해바라기 적십자 봉사회 이영섭 회장과 둘째 아들 의업이, 그리고 문하생의 가족들까지 동원한 인원이었다. 버스 두 대와 2톤 용달 한 대가 동원되었다. 나는 방산동 팀과 45인승 버스에 올라탔고, 아내 박일엽은 35인승 버스에 올랐다. 나는 전 날 대회장소인 양주시 별산대놀이마당을 다녀왔기에 민속예술제 대회장으로 가는 차중에서 대회장내 동선과 시간 활용 최종안을 계속 교육시켰다.



예상대로 대회 장소는 혼잡하였다. 차에서 짐을 모두 내려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으나 진행요원의 협조로 주차장 공간에서 사전 리허설을 하였다. 경기도 내 28개 시군이 출전하는데, 그 중 상여소리 출전팀이 6개 팀이나 되었다. 고양시, 여주, 이천, 양평, 화성, 그리고 우리 시흥시였다. 양평은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팀이고, 고양은 시 무형문화재로 등록하여 육성하는 팀이다. 이천 팀은 전국 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팀이며, 화성 역시 무형문화재가 있던 팀이었다. 여주와 시흥만이 처녀 출전하는 팀이었기에 부담과 긴장이 컸으나 사전에 준비한 그대로 열심히 하였다.

많은 사람이 애썼다. 선소리를 매긴 김인삼 선생과 교육지도에 수고한 박일엽 선생, 박일엽의 문하생 및 가족과 지인들이 동참하였고, 방산동에서는 추봉호 청년회장, 황윤종 통장, 윤옥희 부녀회장, 황갑성 노인회장이 함께 나서 상두꾼 24명과 상주 역할을 맡아 주었으며, 특

별히 시흥문화원 정상종 문화원장께서도 두루마기를 입고 노제의 제주로 참여하셨고, 사무국 이규수 계장도 방상시 탈을 쓰고 대기하였다.

드디어 우리 팀 출전이다. '시흥 상여소리' 깃발을 정의엽이 들고 양 옆에서 두 사람이 받쳐 주어 시흥시 회다지소리 보존회의 출전을 장내에 알리면서, 뒤이어 이규수와 정원상이 방상시 탈을 쓰고 칼을 휘두르며 길을 잡았다. 이어 '진사시흥정씨지구(進士始興鄭氏之樞)'라고 쓴 명정기와 혼백을 담은 요여가 뒤 따랐다. 그 뒤로는 만장기 20기가 상여를 이끌었다. 만장기는 서예가 성제(惺齊) 전남훈 선생이 흰색 천에 장유 선생 외 여러 시흥 선비들의 만시(輓詩)를 담아 장내에 좌정한 한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여 양 옆으로 운삽 2기가 하늘나라로 가기 기원하는 가운데, 선소리꾼 김인삼 선생이 요령을 흔들며 구성진 소리로 상여를 이끈다. 박일엽 선생의 북소리도 상두꾼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방산동 청장년으로 구성된 24명의 상여 뒤로 굴건 제복을 입은 남자상주 3명과 여자 상주 4명이 뒤 따르며 슬피 울고, 동네의 어르신 존장 역할을 한 정상종 문화원장과, 지계를 진 조문객 들이 뒤따르는 거창한 운상행렬을 선보였다.

박일엽의 만가(輓歌) 구음(口吟)을 신호로 장내에 진입하여 대형을 갖추고는 이내 발인제로 공연을 시작하였다. 이제 곧 집을 떠난다는 김인삼 선생의 축문에 이어 앞소리가 끝나자 상여가 움직였다. 긴 상여소리에 발맞추어 원형 경기장을 반 바퀴 돌고는 다시금 노제를 지냈다. 상여를 내려놓고 병풍을 세우고 제상을 놓아 축문을 읽고 나니 상주 윤옥희 씨가 대성통곡을 한다. 관중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참여한 팀원들 모두 마음이 숙연해진다. 다시 방상시가 앞서 길을 열고 명정, 여요와 만장기가 앞서면서 상여 행렬이 빠른 걸음으로 장지까지 나아가 드디어 장지에 도착하였다. 대회장 한 바퀴를 돌고 회다지소리로 넘어간 것이다. 방상시가 묘지의 잡귀를 쫓아내는 춤을 추고, 이어 봉을 든 여성 회다지꾼 8명이 들어서 회다지소리가 시작되었다. 상두꾼들은 봉분 주위로 앉고 만장기도 내려놓고는 삼패의 회다지소리에 맞추어 함께 후렴을 받았다. 순서대로 모두 마치고 본부석에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사진기자들의 사진세례를 받은 상두꾼들은 흥이 가라앉지 않아 대회장 밖으로 나와서도 한 바퀴 돌고 서야 상여를 내려놓았다. 여기저기서 일등은 시흥팀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장례행렬 구성이 잘되었다며 다른 상여팀의 인터뷰 요청까지 받으니 입이 절로 벌어진다.

민속상 수상의 의미와 향후 과제

민속상을 수상하였다. 상위권으로 인정받은 상이기에 기쁘다. 18회 대회를 내내 출전하고도 상을 못 받은 팀도 있다하니 첫 출전에서의 민속상 수상은 큰 위안이 되었다. 노심초사하던 4개월여의 시간과 시도보조금 1000만원에 더하여 자비로 지출한 1100여만원 조달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두어 달 지나니 보람이 더욱 커지며 다시금 발전 모델을 설계하게 된다.

향후 시흥 상여소리에 관한 비전을 다듬어본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시흥시 곳곳을 누비며 채록하던 세월, 2009년부터 3년간 공연무대에 올려 시흥시 내외로 알리던 기간을 거쳐 경기도문화재위원의 고증에 힘입어 경기도 각 시군 민속의 역량을 겨루는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민속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시흥 상여소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몸짓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시흥시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시흥시의 정체성의 하나로서 전승 보급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현재 시흥문화원의 문화교실로 <시흥향토민요와 서도소리> 반에서 박일엽 국악인이 상여소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곳에서 배출되는 국악인들과 시흥시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흥시 회다지소리보존회>의 정기적 상설 공연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또한 전국적으로 상여소리를 하는 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상하여 대한민국 전통문화로서의 상여소리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화 마케팅 측면에서도 주요한 기능을 할 시흥 상여소리의 세계화가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만큼까지 오는데 함께 하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해 본다. 2009년, 2010년 공연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준 시흥시 관계자들과 2009년 첫 공연 때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보조금 지원을 성사시켜 주시고 경기도민속예술제 출전을 주선하신 문화원장님, 그리고 방연근, 김인삼, 신현돌 세 분 시흥의 토박이 어르신들, 서도소리를 배우기 위하여 찾은 박일엽 선생을 만나 상여소리 공연에까지 품을 아끼지 않은 박일엽 문하생들과 시흥시 회다지소리보존회 회원들, 그리고 가족 내 성원을 아끼지 않은 세 아들 의경, 의엽, 의범 모든 이에게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도 열정을 아끼지 않으려다.



2011년 유가행렬 위주로 본 군자봉성황제



글·사진 박종남

군자봉성황제를 하루 앞둔 10월 28일, 군자동 일대와 능곡동까지 원정 유가행렬이 이어졌다. 성황제가 일대의 사람들을 모두 모으던 시절에는 멀리 수원과 안산 일대까지 유가를 돌았다. 세월이 흘러 자취를 감춘 유가(遊街)를 보존회에서 재현하고자 노력했고 몇 년 전부터 성황제가 끝나면 당일에 인근 마을을 돌았다. 하지만 하루 안에 산제와 유가를 모두 하는 것이 힘들어 전날에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근자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았다. 구준물 마을 일대만 돌고 있는 유가행렬이지만 지난해는 동네에 상가(喪家)가 생겨 도일마을로 유가를 돌았다. 차량으로 운반하여 능곡동 중심상가의 신축 건물에서 유가를 마친 일행은 도일을 거쳐 구준물 마을 일대를 돌았다.



유가에 참여한 군자봉성황제 보존회원들은 이삼일에 걸쳐 안산 잣머리부터 오이도를 거쳐 군자동으로 이어졌던 어린 시절의 유가 추억을 떠올리며 흥겹게 돌아다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신청을 하지만 치성을 드리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돈이 오른다. 무게 때문에, 바람 방향 때문에, 지나는 길에 나타나는 장애물 때문에 혼자서는 어려운 서낭대 운반에 세 명이 동원되었다. 지나는 길에 만난 동네주유소에도 간단한 의식이 있다. 막걸리를 곳곳에 뿌리는 당주, 촛불 켜진 상 위에 놓인 세 개의 잔마다 막걸리가 채워진다. 주인을 세워두고 오색의 신장기를 신체 사이사이로 지나가게 하더니 깃발 뽑기를 한다. 주인은 붉은 깃발을 한 번에 뽑아냈다. 목을 축이던 보존회원들의 추임새가 늘어나며 흥이 오르자 한바탕 놀이가 이어졌다.

유가 행렬은 사전에 치성 올리기를 신청한 집으로 향했다. 이층이었지만 계단을 통하여 서낭대가 능숙하게 운반되었다. 연세가 지긋한 노부부가 나와서 유가행렬을 맞는다. 곧 바로 자리가 펼쳐지고 떡시루가 놓이고 북어와 막걸리, 과일들이 놓여졌다. 보존회원들의 타악기 연주가 멈추자 당주의 의식이 시작된다. 쌀



을 집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솟자를 헤아려 맞지 않으면 또 다시 집어 헤아린다. 잡은 쌀은 주인내외가 먹게 된다. 떡시루를 머리에 이고 읊조리는 당주, 당주가 건네주는 떡시루를 안주인이 받아 절을 하고 당주는 밤과 대추를 들고 한바탕 읊고는 주인 옷자락으로 던진다. 집안으로 북을 부르는 행위들이 이어졌다. 북어를 들고 신명나게 춤을 한판 추는 당주, 유가의 의식도 제법 길다. 오색신장기를 뽑는 것도 잊지 않는다. 깃발의 색 선택이 순조롭지 못했다. 연거푸 뽑기를 반복하고 액막이 축원도 뒤따른다. 바깥주인에게 낙상을 우려한 일층 출입을 조심하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집안에도 성주를 위한 떡시루가 놓여 있어 또 다른 의식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주인 내외 주머니 쌈짓돈이 상위에 놓였다. 어스름한 저녁 빛이 감돌기 시작하고 붉게 타는 노을이



간당간당 산 너머에 걸렸다. 유가 행렬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당주의 굿당 앞에서 마무리 의식을 치렀다. 여섯 시간에 걸친 유가는 끝이 났고 군자봉성황제 준비로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하루가 마무리 됐다.

다음날, 군자봉성황제는 밤새 오던 비가 때마침 그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비닐로 포장한 서낭대와 제수들이 정상으로 운반되었다. 연성중학교 북새통 동아리와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성황제에 참여했다. 비가 그쳤지만 쌀쌀한 기온이 감도는 군자봉 정상은 풍물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황제를 사진에 담으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의식이 시작되자 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치성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의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주민들은 군자봉 산 아래 마련된 식사 대접을 받았다. 보존회에서 전날부터 준비한 200인분의 음식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힘이 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주민들. 구준물 토박이로 자월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한 보존회원은 적어도 1박2일이 걸리는 이 행사 참여를 위해 원정을 마다 않는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며 그만큼 중요하다고 믿기에 하는 일이다. 유가 행렬을 진두지휘했던 이도수 통장은 “늘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자봉성황제에 참여하니 좋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참여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군자봉성황제 제물 나르기의 달인

군자봉성황제가 있던 날, 군자봉 만남의 숲에서 제물을 운반해 온 경운기 한 대를 만났고 지게로 정상까지 짐을 저 나르는 사람들도 보았다. ‘그냥 올라도 숨이 턱에 차는데 짐을 지고 오르니 쉽지 않겠구나’ 하는 가벼움으로 그들을 지나쳤다. 제가 끝나갈 무렵 통돼지를 삼지창에 세우는 사실세우기를 마치자 돼지의 운반이 궁금해졌다.

마침 돼지를 지게로 저 올린 이상익(56, 군자동) 씨를 만나 제물 운반 역사를 듣게 됐다. 지금의 돼지는 규격이 정해져 그다지 무겁지 않다. 처음 그가 돼지를 저 올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다. 18살 나이에 250근이나 나가는 돼지를 운반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하루 임금이 보통 150원이었다. 하지만 아무나 도전할 수 없던 돼지 운반의 품삯은 800원이었다. 그때의 군자봉은 민둥산이었고 간간이 진달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무를 하려면 정상까지

가야 겨우 소나무 구경이라도 하던 시절이라 군자봉은 그에게 그냥 놀이터 같았다.

160kg의 무게를 지게로 저 나르려면 무엇보다 지게작대기가 튼튼해야 했다. 정상까지 두 번만 쉬고 내쳐 올랐으니 힘이 천하장사라고 소문이 났다. 비싼 임금 때문에 누구나 해 보고 싶어 하는 일이었지만 무게 감당이 되지 않아 달인이 된 그만이 가능했다. 대단하다는 말에 그는 “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미련했다”며 웃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막걸리까지 커다란 나무통으로 저 나르던 그 때는 짐 운반 인부만 100여명이었다. 술단지까지 가져 올라가 정상에서 술을 걸어 고기를 삶았다. 군자면 36개리 사람들이 모이고 인근 주민들까지 합세하니 군자봉 정상은 발 디딜 틈이 남지 않았다. 설거지물이 구정물이 되도록 많은 인파들의 음식이 현장에서 해결되었다.

10년 전부터 경운기로 만남의 숲까지 쉽게 이동을 하고 돼지 무게도 줄어 돼지 운반은 일도 아니란다. 그는 군자봉 정상에 있는 느티나무보다 훨씬 컸던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향나무가 60년대 말에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무조건 신봉하지는 않아도 군자봉성황신은 나름 의지가 된다. 굿이 끝나면 당주 집 주변 아이들의 입이 늘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긴 세월 제물을 저 나르며 성황제를 함께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힘들지 않는 일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지면 힘이 닿는 한 제물 운반을 계속하겠다”는 그, 성황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한 그가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동감 & 동행

결혼이주여성 / 반려동물 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의 든든한 친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양계영 씨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양계영(44) 씨. 수차례 전화 통화 후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점심시간이었다.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불일을 보는 것이 마음에 걸려 선택한 대안이다. 아직도 발음이나 억양이 어색했지만 외모에서 풍기는 이질감은 전혀 없다. 그녀는 중국인이며 한족 출신이다. 1997년에 한국에 직업연수생으로 왔다. 강원도 작은 도시에서 근무했는데 남편은 그 직장에서 만났다. 그녀의 성품을 지켜본 직장 동료가 다리를 놓아 남편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곧 결혼으로 이어졌다. 3년을 기한으로 들어왔던 그녀는 결혼으로 영구히 한국인이 되어 눌러 앉았다.



양계영(왼쪽) 씨 가족

처음엔 언어소통이 제일 큰 문제가 됐다. 한자를 많이 알던 남편이 종이에 한자를 썼고 그 한자를 읽고 뜻을 파악하는 필담이 한동안 그들의 대화를 대신했다. 결혼 후에 안산으로 이주를 했고 곧바로 시흥에 보금자리를 잡았다. 장벽은 언어소통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 손에 길러지던 남편의 일곱 살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감 없이 가족이 되었는데 자라면서 때때로 그녀를 힘들게 했다. 교제를 할 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가사 분담에 있어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중국의 남성과 달리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의 배가 남산처럼 불렀을 때나 심지어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할 때도 집안일을 모른척했다. 너무 낮설었다. 문화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너무하다 싶었다. 그녀를 위로한다고 주변인들이 건넨 말은 ‘한국 남자 특히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섭섭했지만 남편만이 아닌 다른 한국 남자도 그렇다니 이해를 했다.

하지만 십여 년이 흐르면서 남편은 달라졌다.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을 조금씩 돕고 있다가 그녀의 직장생활이 바빠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낸다. 나름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하여 이제 한국 음식도 잘 만들지만 여전히 밥상에 오르는 것은 만두와 국수 그리고 볶음반찬 류가 대부분이다. 그녀가 처음으로 담갔던 김치는 지금 생각해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중국에서 김치라고는 구경도 못했던 그녀는 남편을 위해 김치 담그기를 시도했는데 완전 실패였다. 맛을 내보겠다고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넣었고 게다가 참기름까지 쏟아 부어 먹을 수가

없었다. 구원병으로 나선 옆집 아줌마가 “이건 김치가 아니다”란 판정을 내렸다. 첫 작품은 엉망이 되고 말았지만 이제는 김치 정도는 손쉽게 담글 수 있다.

음식 문화의 차이는 제사와 명절에도 나타났다.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는 중국과 달리 집에서 지내는 기제사 음식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하나씩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낸다.

그녀는 요즘 생활이 바쁘다. 직장생활이지만 중국어 강의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만나는 일은 즐거움이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이 외로웠다. 말을 나눌 사람도 갈 곳도 없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한국 생활에 적응이 안 된 이주 여성들의 벗이 되었다. 외로움을 겪어 본 그녀가 새로이 타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상담자가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아이 때문에 참고, 방법이 없어서도 참고… 이제는 아예 포기했어요”라며 웃는 그녀는 한국의 여느 기혼여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사회 복지 시설이 너무도 잘 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그녀는 예쁘게 잘 자라는 딸과 가게 운영을 하며 그녀를 말없이 도와주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간다. 한국 안에서 이젠 낯선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 그녀는 “외모의 다름으로 인한 선입견이나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베이징에서의 만남 그리고 결혼

결혼이주여성 이금희 씨



회사에서 연수를 겸한 중국 여행을 떠난 한 남자가 북경에서 그들을 안내하러 나온 가이드에게 첫눈에 반했다. 흰칠한 키에 빼어난 미모,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말. 그 남자는 첫날부터 여자의 깃발을 대신 들었고 2박 3일 내내 그녀 옆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여행을 마친 남자는 한국에 돌아와 명함에 적힌 여자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남자의 감정에 확신이 서지 않았고 국제 연애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여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 있는 남자는 북경으로 또 다시 날아왔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렇게 이년동안 주말이면 인천과 북경을 오가는 그들만의 연애가 이어졌고 드디어 2007년 결혼했다. 남다른 연애스토리를 지닌 영화 속 주인공

공 같은 이금희(33) 씨를 만났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하기엔 정말 착한 몸매였다. 전혀 불편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우리말 구사 실력이 상당했다. 조선족이기도했지만 한국여행자들을 위해 가이드 생활을 한지라 톱 부러지는 외모만큼 단어 선택도 어김이 없다.



이금희(오른쪽) 씨 가족

남편 회사에서 그들의 요란한 연애평정을 알고 있어 특별히 북경지사에 발령을 냈다. 덕분에 하던 일을 하면서 신혼 생활 6개월을 보냈다. 배가 불러오자 한국행을 택했다. 전업주부가 된 한국 생활 4년 만에 그녀는 두 딸의 엄마가 됐다.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러 북경에서 친정 엄마까지 출동했고 덕분에 컴퓨터 자격증부터 한국어 등급시험 응시까지 그녀가 배우고 싶은 것은 다 배우며 생활한다. 혼자 벌여 혼자 쓰던 싱글 생활과 달리 살림꾼 남편을 만나 맘대로 소비는 못하지만 다문화가정지원에 힘입어 이것저것 배우는 일에 흥미를 붙여 살맛나는 한국생활을 한다. 자격증을 따서 당장에 뭘 하지는 못해도 뿌듯하고 당당해져 또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그녀는 여느 한국 며느리들처럼 시댁에도 두 달에 한 번씩 다녀온다. 그녀를 외국인이라 생각지 않고 처음부터 인정해 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두 가족의 상견례가 북경에서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북경여행 안내도 당연 그녀의 몫이었다. 시부모님들은 '시골에는 결혼 후에 슬그머니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스럽다'는 말을 아들에게 내비쳤다. 친정 엄마는 '한국은 좋은 차만 우선 가지려고 하는데 집이 꼭 있어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속내를 비쳤다. 다행하게도 남편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를 만난 시부모님도 걱정을 접었다.

중국은 먹는 음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 한국 생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물가 걱정을 앞세우는 그녀는 평범한 한국주부의 모습이다. "아이들이 자라니 이곳 생활 적응이 제일 우선이며 그것만 생각한다"며 "외로움을 타지 않을 만큼 국가와 지방에서 복지 지원을 하여 한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남은 친정 가족이 북경에 살고 있지만 이제 자신이 살았던 그곳은 여행지가 되어 그녀를 기다린다. 소극적이고 마음속으로 삼키는 중국인들과 달리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한국인에 익숙해져 간다는 그녀. "다른 차이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전반적인 차이는 아직 피부에 와 닿는다"고 했다. 여전히 늘 사랑으로 대하는 남편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두 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금희 씨.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그녀는 "우리"로 함께 어울려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



우리집에 와줘서 고마워!

글·사진 백인숙

어려서부터 우리집 아이들의 선물 목록 1호는 항상 강아지였다. 집에서 개를 키운다는 게 영 부담스러워 햄스터, 거북이, 열대어, 장구벌레, 올챙이, 병아리, 잉꼬 등 수없이 많은 동물을 키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고 뒹굴고 교감할 수 있는 강아지를 무척이나 원했다. 결국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개를 키우기로 약속해버리고 말았다.

사실 나도 엄청 개를 좋아한다. 개에 대한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나로선 개를 키우고 싶은 욕망이 아이들보다 더 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막상 주부 입장에서 개를 키우려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집안일도 허덕거리며 하는 판인데 개 뒤통다끼리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이들은 자기들이 목욕시키고 병원 데려가고 대소변 치울 거라며 큰소리쳤지만 학교가고 학원 가버리면 그 약속 못 지킬 거라는 걸 뻔히 안다. 무엇보다 잘 키울 수 있을지, 키우지 못해 다른 곳으로 보내야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지, 큰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가족 건강에는 괜찮을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만 쌓여갔다.

아이들과의 약속은 지켜야했기에 지인에게서 3개월 된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건종은 말티즈, 온통 흰털을 가지고 있었고 어른 손바닥만 해 완전 귀여웠다. 첫눈에 반해버렸다. 첫 만남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줘 이름은 '기쁨'이라 지어주었다. 기쁨이는 분양받기 전까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다. 모유를 먹고 자란 강아지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애견샵에서 분양받은 개보다 훨씬 건강하고 성격도 좋단다.

기쁨이가 우리집에 온지 4년째 들어서고 있다. 난 엄마가 자식 자랑하듯 기쁨이를 자랑하고 다니는 팔불출이 되어있었다. 성견이 된 기쁨이의 미모는 김태희 뺀치고 엉덩이가 살짝 올라간 몸매는 S라인 그 자체다. 혼나도 절대 기죽는 법 없고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폴짝폴짝 뛰며 온몸으로 반겨준다. 그렇게 성대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집안에서 개 키우는 것을 위생상의 이유로 몹시 못마땅해 하던 남편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기쁨이를 먼저 찾는다.



단지 작은 강아지가 온 것뿐인데 우리집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신기할 정도다. 다소 조용했던 우리집은 한층 밝아졌다. 말이 많아졌고 이야깃거리도 풍부해졌다. 기쁨이와 같이 장난치고 산책 나가고 잠자며 가족 간에 나누지 못했던 어색한 애정표현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싸웠을 때도 기쁨이로 인해 더 빨리 화해를 하게 된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기쁨이는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 기쁨이를 분양받기 전에 했던 모든 걱정근심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 기쁨이 2세에 대해 고민 중이다.

기쁨이를 키우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있다. 집안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동물을 좋아해야 오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변을 훈련시키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목욕시키는 일,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보살펴 줘야하는 일 등 동물에게 쏟아야하는 노력이 만만치 않다. 가족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통 부담이 아니다. 그러니 아이들 성화에 무턱대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심사숙고해야할 문제다. 키우다 못 키우겠다고 다른 집에 보내버리거나 유기해버리면 동물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말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도 있다. 예방접종 맞으러 동물병원을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개를 안고 오셨다. 목줄을 안 하고 산책 나갔다 차에 치었다고 했다. 개는 장이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목줄을 안 하고 밖에 나갔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개들은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 꼭 목줄을 해야 한다고 수의사는 당부했다.

또 기쁨이랑 산책하다보면 자신의 개가 대변을 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산책을 나갈 때는 꼭 휴지와 봉지를 챙겨서 개의 대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 & 공간

새우개마을 민속극 공연을 마치고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새우개마을 민속극 공연을 마치고



글 정원철(시인)

새우개마을 민속극 기획 배경

시흥시에 거쳐해 온 16년 내내 오이도와 월곶 바닷가 정취를 시흥시 제일의 매력으로 꼽았는데 이후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경기도 제일의 부자 어촌이던 포동 새우개마을의 존재도 알게 되었다. 전통예술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4년 전부터 새우개마을 민속극을 기획하였다. 네번의 공연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발굴하고, 고증 자료를 검토하여 도출한 주제는 어촌의 운명적 사안인 만선의 흥(興)과 파선의 한(限)을 여하히 드러내는가였다.

지금의 새우개마을은 연평 조기잡이를 마치고 만선기 꽃고 돌아오던 귀항선이 자취를 감추었고,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당고사와 당굿도 끊겼다. 허물어져가는 담장에 갇힌 새우개마을의 당집과, 선착장이었던 게이트볼 장을 둘러보며 어부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본다. 목숨을 담보로 한 투기같은 고기잡이를 나갈 수밖에 없던 어부들, 조개와 맛을 채취하던 갯벌이 일인의 손에 의해 염전이 되어버리자 고개를 떨구었을 부녀자들, 해방 이후 어로 환경의 변화로 파산한 선주들, 염전 폐쇄 후 공장지대로 변한 새우개마을 변천사를 생각하면 우리 민족 한의 정서가 절로 떠오른다.

지금은 민속문화재로 지정, 보호하지만 한 때 미신으로 질타 받던 도당굿은 풍랑에 좌초하기도 하고, 그물을 잘못 내려 빈 배로 돌아오기도 하던 어부와 가족들의 소망인 무사항해와 만선귀항을 기원하던 절박한 소망의 표출이었다. 목하 새우개마을의 어업은 쇠퇴하였으나 근래 들어 대동제의 의미를 살려 주민들이 당고사를 재현하기도 하고, 예술인을 중심으로 새우개마을 장승놀이라는 민속극을 창작하기도 하지만 이제 새우개마을의 대동제와 대동굿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깊은 잠에 들어간 듯이 보인다. 어촌이 사라지고 어촌의 민속을 재현할 주체가 없으니 이제 전통예술인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서도소리와 바닷가 민요

서도소리는 민요 및 잡가로 이루어진 국악의 한 장르로서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번성하던 전통성악예술이다. 서도소리는 황해도 앞바다 연평도의 조기잡이를 매개로 서해안 전역에 서도민요 ‘배치기’를 퍼뜨린 주체였다. 시흥시는 인천, 안산과 더불어 서도소리 권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80여 년 전 군자염전 축조 당시에 평안도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정왕동에 집단 촌락을 이루었었고, 육이오 동란 이후에는 오이도와 포동 등지에 황해도민들이 정착하여 서도문화가 시흥시에 정착하였으며 연평도 조기잡이 대열에 적극 나선 포동 새우개마을에서도 ‘서도소리 배치기’를 오래전부터 흥겹게 불러왔다. 시흥시에서 황해도 개성이 직선거리로 그리 멀지 않으며, 역사적으로도 시흥지역의 호족인 안산 김씨와 해주 이씨가 고려 중엽에 권세를 부리던 시절을 고려할 때 시흥시가 황해도의 문화권역에서 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시흥서도소리보존회는 2006년 1월 23일 개설하였으나 지부장 박일엽(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예능이수자)은 1996년 9월 시흥시 정왕동 금강아파트 상가에 정착한 이래 꾸준히 후학을 양성하면서 시흥시 향토민요에 관심을 기울여 서도소리와 시흥시 향토민요를 시흥시예술마당에 한데 버무려 4년 전부터 바닷가 민요를 무대공연화 하여 왔다.

새우개마을 민속의 발굴 및 편집

시흥시사와 새우개마을 당제 책이 발간되기 전에는 새우개마을의 민속을 접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에 부딪히곤 했으나, 시흥시사 권6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을 수시로 읽고 시흥시에서 간행한 〈새우개마을 당제〉를 읽으면서 새우개마을의 주요한 민속으로 새우개마을 당제(당고사)와 당굿이 있었고 뱃고사와 배치기 연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집에서 모시는 신격으로는 경기내륙지방에서 모시는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와 함께 조기잡이의 신으로 여기는 임경업장군과 뱃전에서 모시는 소당아기씨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평도와 칠산으로 조기잡이 나서던 경기 충청 및 전라도의 조기잡이 배는 모두 서도소리의 배치기를 부르며 새우개마을의 남쪽 바로 아래 포구인 안산 초지동과 소래포구에서도 배치기를 중요한 민속으로 보존하여 왔음을 여타 문헌에서 확인하였다.

2009년부터 어촌 당시의 새우개마을 주민을 직접 만나러 다녔다. 전임 김선수 통장을 만났고 87세의 이종춘翁을 만났으며 금년 6월 미산동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노인회장을 지내셨던 이종기翁을 만나 보았고, 시흥시사에 등장하는 이정근 선생도 만났다. 그리고 현 안병권 통장, 현 새우개마을 노인회 함점례 회장과 유점옥, 정옥희, 이연순 할머니와 박연옥 총무 등의 주민을 만나 보았다. 몇몇은 참고가 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몇몇은 대화 자체도 달가워하지 않는 만남이었으나 새우개마을 민속지식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새우개 마을의 어부였던 어르신들은 저승으로 타지로 흩어져 버려 배치기 노래를 직접 채록할 길이 없으나 새우개마을 노인회 어르신들이 배치기를 흥겹게 따라하는 것으로 보아 시흥의 향토민요임은 재론의 필요조차 없음을 알았다. 지금은 공장으로 빙 둘러 싸인 새우개마을 경로당을 찾았다. 할머니들은 당제 주관을 마을에서 선정한 몇 사람(남자)에게만 맡기고 구경조차 못하게 하였기에 단편적인 기억속의 어촌풍경 이야기만을 기억하시나 이구동성으로 배치기 민요를 부르던 이야기를 하신다. 도당굿 굿거리가 바뀔 때마다 중간중간에 배치기를 연행하고, 출항 전 선주들이 뱃고사를 지내며 잔치를 벌일 때와 만선 귀항하여 동네잔치가 벌일 때 불러왔음을 확인하였다.

인천시와 안산시의 바닷가 문화재 관련 자료를 점검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배치기’ 민요를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하였는데 갯가노래와 뱃노래로 나누어 갯가노래로는 나나니 타령과 군음이 있고, 뱃노래로는 배치기, 닻감는 소리, 노젓는 소리, 바디소리, 시선뱃노래를 지정하여 놓았다. 한편 안산 초지동 ‘둔배미’에서도 출항 전날 목욕재계하고 당집으로 가서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리고는 징과 팽과리를 치며 배치기 노래를 부른 뒤 조업을 나갔다가 만선으로 돌아오면 포구는 배치기 민요를 메기고 받는 잔치판으로 변했다고 한다. 초지동 둔배미는 포동 새우개마을에서 해안선을 따라 바로 아래에 위치한 포구였으니 안산과 인천에서 행해지던 배치기가 새우개마을에서도 불렸음은 두 말할 필요 없겠다. 역사적으로 포동은 조선조에는 인천부에 속해 있었고 둔배미와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시흥시 군자동, 정왕동도 조선조 안산군의 일부분이었으니 더 말할 것 없는 일이다.

또한 인천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나나니 타령(연평도 난봉가) 역시 시흥의 갯가에서 불렸을 것이다. 시흥시에서 불리던 연평도 난봉가는 1937년 소래염전 축조 이후 실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연평도 난봉가(나나니타령) 역시 포동 새우개마을의 전통민요로 간주하고 무대 공연에 배치기와 함께 올렸다.

새우개마을 민속 재현의 과제

비록 어로행위는 자취를 감추었어도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당제와 당굿을 정기적으로 재현하면 살아있는 민속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새우개마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하는 당제와 당굿 재현이 중단된 지금 전통예술인들이 새우개마을 민속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였다. 새우개마을 민속을 예술 무대에 올리는 것은 새우개당제와 당굿의 직접 재현, 새우개마을의 정서를 스토리텔링하여 민속극화하는 일, 나아가 무용극이나 연극, 뮤지컬 등으로도 작품화하는 것이기에 국악인 박일엽 지부장이 이끄는〈시흥서도소리보존회〉에서 바닷가노래를 중심으로 민속극을 창작하였다.

향후 새우개 도당제와 도당굿의 무대화는 축제형식으로 재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 일박이일의 연행이던 도당굿을 극장식 무대에서 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2시간 이내의 공연시간에 도당굿의 신명과 새우개마을 어부, 선주들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새우개 뱃고사 고증

〈새우개마을 민속극〉이라는 타이틀의 공연준비에서 가장 고심한 대목이 뱃고사 재현 부분이다. 21세기인 지금도 차량을 구입하면 시승식과 함께 고사를 지내듯이 새우개마을의 조기잡이 배가 출항할 때엔 반드시 뱃고사를 지내고 출항하였다. 그리고 도당굿을 마친 이튿날도 당주가 나누어준 제물을 놓고 뱃고사를 지내곤 했다. 그러서도 정성이 부족할까 하여 연평도 근해에 도착하면 조기신인 임경업 장군의 사당을 찾아 제사를 모시고, 뱃전에서도 풍어 기원의 놀이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풍속을 무대에서 공연할 때엔 보다 구체적이어야 했다.

뱃고사를 지낼 때 고사머리에 배의 서낭신 소당아기씨를 상징하는 바늘, 실, 삼색천을 고사머리에 놓아야 할 지, 소당아기씨를 상징하는 소지를 걸어 놓아야 할 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다가 ‘뱃고사는 배 아래(바깥)에서 봉죽기를 꿸고 고사를 지낸 연후에 선원이 봉죽기를 배로 가지고 올라갔다’는 김선수 전통장에게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고사상 양 옆으로 봉죽기만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대부도에 있는 ‘어촌민속박물관’을 찾아가니 풍도에서의 뱃고사 기록에서도 유사한 점을 재차 확인하고 봉죽의 모양새도 면밀히 살폈다. 물론 제물의 종류도 돼지머리에, 팔시루떡, 삼색과일, 삼색나물에 막걸리를 올리는 것도 확인하고서야 뱃고사를 무대에 올렸다. 문화원에서는 뱃고사에 올릴 제수를 모형으로 제작해주고 봉죽 재료를 구입해 주어 회원들이 며칠간 봉죽을 종이꽃으로 만들어 무대를 꾸몄다. 전통문화의 복원에 상호협조체계가 이루어져 기쁘다.

어촌 민속극

새우개마을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민속극, 새우개마을의 역사와 함께 하던 한의 정서, 한을 극복하고자 했던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된 민속극 공연을 기획하였다. 새우개마을의 민속을 무대에서 재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나는 어부들의 삶의 절박함에서 비롯되는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보았다. 배 떠날 때 부르던 민요가락이 곧 기도였으며, 갯가에서 조개 채취를 하다가 부르던 민요들이 모두 기도였을 것이다. 도당제와 도당굿은 ‘기도하는 마음’의 완결판이었을 것이다.

금년도 새우개마을 민속극 공연 준비는 먼저 기존의 민요에서 선곡으로 출발하였다. ‘배치기’와 ‘연평도 난봉가’ 두 곡을 기둥으로 세우고, 뱃사람들의 애환을 스토리화한 평안도민요 ‘배따라기’와 평북 해안 지방에서 부르던 애조 깊은 ‘긴아리, 자진아리’로서 어부들의 한의 정서를 크게 드러내었다. 또한 조기잡이 나가는 서해안 마을마다 풍어제 때 부르던 ‘봉죽타령’과 뱃전에서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던 민요 ‘술비타령’은 예술성이 높아 국악인(서도소리창자)에게서 많이 사랑받는 민요여서-새우개마을의 중선배도 연평도 근해로 조기잡이 나가서 타 지역의 어선처럼 술비타령을 불렀을 개연성이 크기에- 배치기와 함께 프로그램에 넣어 흥의 정서를 북돋우었다. 민속극의 아름다움을 돋우기 위하여 액운을 피하는 의식인 한국무용 살풀

이춤을 서두에 배치하고, 고즈넉한 어촌의 정조를 투영한 창작민요 '출항배치기'와 소래초등학교 강주원 선생님이 작곡하신 '파선뱃사람'을 보태었다. 그리고 포동의 갯골 건너 남쪽에 효종의 장인 장유선생이 광해군시절 은거하던 장곡동을 찾아가는 선비를 등장시켜 어촌 아낙과 조우하는 내용을 스토리화하였다. 시흥시 포동 새우개마을 민속극으로서의 타당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스토리와 민요를 염선하여 공연에 올려 큰 박수를 받았다.

4년간 4회에 걸친 바닷가 민요의 민속극화

시흥시 전통예술부문에서 바닷가민요를 소개하기 시작하여 금년도 <새우개마을 민속극>으로 올리는데 4년의 기간에 몇 단계를 거쳤다. 2008년에 인천, 안산의 바닷가 전통민요를 채집하고 서도소리에 산재해 있는 바닷가노래를 발췌하여 2009년 4월 11일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민속한마당 프로그램으로 <박일엽의 서도소리-만선의 꿈, 서해바다> 공연을 올렸다. 내



외 관광객에게 꽤 반응이 좋아 그 해 가을에 시흥시 여성회관 대공연장에서 '만선의 꿈 서해바다' 공연을 재차 올려 전통 바닷가 민요를 시흥시민에게 소개하였다. 어촌에서 도시화된 이후에 시흥시로 이주해온 시민들은 처음 듣는 흥겨운 바닷가 민요에 박수를 보내고는 더하여 흥미 있게 각색할 것을 바랐다. 다시 1년의 여유를 가지고 스토리텔링화하여 극본을 만들고 창작곡 및 개사를 하였다. 금강산타령이라는 경기민요의 가사를 '시흥구경'의 창작가사로 바꾸었고, 파선뱃사람 창작곡(전 월곶초등학교 교사 강주원 작곡)도 삽입하여 2010년 11월 25일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한울림관에서 서도소리극 <만선의 꿈 시흥바다>를 올렸다. 지역명예교사 사업으로 시흥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이 공연에 정식으로 어촌 새우개마을을 등장시켰고, 몇 주민이 배치기 노래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발전하여 온 <만선의 꿈 시흥바다> 민속극은 금년에 포동 새우개마을의 노인회회원들이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고 공식출연하여 뱃고사와 배치기를 함께 공연하였다. 바닷가 노래인 서도소리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향토민요를 더하고, 나아가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어촌 새우개마을의 민속을 재현하는 민속극을 탄생시킨 것이다.

감동의 샘, 민속극으로의 진화

2011년 8월 13일, 시흥서도소리보존회 제6회 정기공연으로 새우개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새우개마을 민속극 <만선의 꿈 시흥바다> 공연을 하였다. 부슬비와 소나기가 교차하는 불순한 일기에도 시청 대강당에는 200여명의 시민과 전통예술 마니아들이 모였다. 새우개 마을 노인회 합점례 회장님을 비롯하여 노인회원 10여명이 오시고, 방산동 김인삼 선생, 향토사로

실 김치성 상임위원도 끝까지 관람을 하였다. 새우개마을에서 태어나 생애를 보낸 주민들에게 사실과 부합되며 감동적인 민속극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였다. 공연을 마치니 새우개마을 주민들이 매년 정기공연 해 달라고 하는데 노인회원들은 벌써 내년엔 출연할 생각에 설렌다.

금번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으나 향후 시흥의 민속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더욱 세세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공연이 끝난 지 꽤 여러 달 지난 지금도 머릿속이 분주하다. 다음 공연은 첫머리에 새우개 장승을 세우고 풍물 치며 노는 장면으로 시작할까, 아니 새우개도 당굿을 과감하게 무대 위에 올릴까, 경기도당굿을 침묵하여 극본을 만드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 등 혼자 생각이 분주하다. 어쨌든 적절한 기회가 도래하면 새우개 당제와 당굿을 포함하는 새우개마을 민속극을 본격적으로 재현하고 싶다. 4년간 새우개마을 민속극을 기획하며 진화시키고자 열망하다보니 종종 어촌 새우개마을의 꿈을 꾸다. 때로 눈뜨고도 꿈을 꾸다. 햇살이 따사로운 배란다에 앉아 푸른 하늘을 보며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그 상상의 세계를 다시 무대에 올릴 것이다. 그를 시로 적었다.

새우개 어촌 순이와 돌이 / 정원철

1.

개펄에 실얼음 번지고 뱃머리에 복서풍이 휘도는
정월 초사흘날 마을은 분주하다.

한 생전 떠나지 못하는 당집이 꿈벅 눈을 뜨고
우물물 퍼내는 소리,
조라치성 드리는 몸짓이 커진다.

아버지 제삿날이 같은 순이와 옆집 돌이도 잠에서 깨어
풍물 소리에 조가비 사립문을 나선다
선주들 손에 핀 지화(紙花) 봉죽이 화사하다
서편 마을에는 돌돌이 도는 화랭이
아랫당에는 무녀의 방울소리 떨어거린다.

배치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막걸리 한 순배 돌고
한바탕 춤판이 너울진다.

왕당대 든 무녀 당집에 오르면

선주 아저씨 걸음도 바쁘고

마을사람들 따라서 갈매기 떼 학미산을 돈다.

선주는 소지를 갈아 끼운다.

뱃전에는 봉죽에 삼색기 펴령이고 선주는 무릎 꿇고 절한다
젓상의 돼지머리도 연신 웃는다.

바늘과 실이 마주 붙어 있고,

기관실 선반에는 소당아기씨 화장품이 두어벌 앉아 있다.

선달 그림에 새로 들인 북방축귀대장군의 웃음 소리가 크다.
여러 생을 거쳐도 떠나지 않겠다.

2.

어느덧 중선배도 간 곳 없고

어부들도 간 곳 없다.

개펄에 염부들 분주하던 정경도 다시 간 곳 없지만,
아버지 배웅 나가던 습관대로
순이와 돌이는 눈만 뜨면 선착장으로 나선다.

여전히 만선 깃발 펴령이고

갯골 따라 풍물 소리 들린다.

갯골 타고 오르는 중선배는 보이지 않아도

하늘 한 조각 떼어 낸 듯 청명한 팽과리 소리와

둔탁한 파도소리 정소리가 날아든다

뒤이어 오색깃발을 휘날리면서 어허 여영차 만선배가 보인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 문화 복합공간 '활짝'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바람 부는 날에는 오이도에 가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오이도에 가자
서해 가로질러 숨 가쁘게
달려온 소금 품은 바람으로
상해버려 냄새를 피우는 생활을 닦자
바다 넣고 끓인 국물로
마음의 온도를 높이자

이재무의 시 「바람 부는 날엔 오이도에 가자」 일부

글 유서원
사진 김성환



지난해 10월, 이재무 시인은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개관을 이렇게 축하했다. 오이도에 바다와 바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7800여 명 주민들의 생활이 숨쉬는 곳이다. 그런 오이도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와 공공도서관조차 없었다. 오이도의 유일한 학교, 옥터초등학교 건너편에 자리 잡은 오이도문화복지센터는 그래서 더 특별하다.

센터 1층에는 경기도 지원으로 운영되는 '꿈나무 안심학교'와 경로당이 마주하고 있다. 3세대 통합을 염두에 뒀다. 평일에는 방과 후부터 밤 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안심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바이올린과 풍물, 미술을 배우고 축구와 탁구, 배드민턴을 한다. 교과목 공부도 하고 저녁과 간식을 먹을 수 있으며 아픈 아이들은 침대에서 한숨 잘 수도 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의 부모들에겐 이름 그대로 '안심'학교다. 방학 중에는 오전부터 문을 연다.

맞은 편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함께 밥도 지어 먹는다. 아이들을 걱정하고 오이도의 옛 모습을 더듬는가 하면, 바둑을 두고 텔레비전을 보며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2층의 오이도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고대했던 시설. 도서관에 가려면 차를 타고 정왕동까지 나가야했던 주민들로서는 2500여 권의 장서를 갖춘 작은도서관이 반갑기만 하다. 작은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동화구연과 독서퀴즈대회, 독후감 발표 등 '북파티'가 열리는 소통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2층에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아담한 청소년실을 마련했고 그 옆의 프로그램실에서는 요가와 북아트, 한지공예, 댄스스포츠 등의 강좌를 진행한다.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노인들은 함께 한글을 배운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휴게공간이 있다. 강당에서는 무료영화와 인형극을 상영하고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판매금액의 10%를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어린이돕기에 기부하기도 했다. 때로는 3세대가 모여 노는 잔치가 열린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정옥추 센터장은 "주민들의 화합과 동질감을 유도해 오이도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배움과 참여, 나눔과 소통 즐거운 ‘인생 2막’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4층, 늑내골작은도서관의 문을 열자 차향이 책 냄새 보다 먼저 다가온다. 오전 10시, 아직 도서관은 한산하지만 북카페 ‘책다정’은 책과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이곳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실버 바리스타들이 전통차와 허브차를 1500원에 판매하는 곳이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작은도서관은 책다정으로 인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도서관이 됐다. 책과 담소, 독서와 휴식이 만났다.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지만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감안, 활자가 큰 자료와 도서확대기를 비치했다. 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서 욕구조사를 실시해 도서구입시 반영하기도 했다.



3층으로 내려오면 돌연 활기가 느껴진다. 탁, 툭, 맑은 소리가 울리고 와아, 아이고, 환호와 안타까운 탄식이 엇갈린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 중 하나, 당구장이자. 8명의 노인들이 당구 치는 데 열중하느라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관심도 없다.

“당구 배운지 녀 달 쯤 됐는데 120점 나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강사한테 수업을 받아요. 실력은 늘고, 체중은 줄고 너무 재미있지요.” 구호서(64·능곡동) 씨는 젊었을 때 일하느라 못 배운 당구를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어서 즐겁다고 말했다. ‘구구팔팔’이라는 당구동호회도 결성돼 회원이 20여명에 달하고 이 중 세 명은 여성이다.

컴퓨터실인 정보누리에서는 서 너 명의 노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강의실인 슬기샘에서는 서예 수업이 한창이다. 사랑샘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하모니카를 불고, 행복누리실에서는 강사의 동작을 보며 건강댄스를 따라 하느라 분주하다. 바른샘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낮에는 네일아트와 방송댄스, 저녁에는 요가와 댄스스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동시설로 활기 넘치는 3층을 내려오면 이에 못잖게 왁자지껄, 도란도란 분주한 2층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훈수가 있어 더 재밌고 소란스러운 바둑실, 웃음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풍류가락 노래방’, 할머니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도란도란 찜질방’,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천하일색 미용실’까지 이름부터 특색 있는 시설들이 2층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탁구장에서 남녀혼합 복식 경기를 하고 있는 노인들은 젊은이들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는 듯하다. 이미 경기를 뛰고 옆에 앉아 잠시 쉬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최민규(78·목감동) 씨는 탁구동호회 회장이다.

회원이 자그마치 55명. “30분 정도는 쉬지 않고 거뜰히 칩니다. 여든 네 살 회원도 계신데요. 탁구는 전신운동이고 두뇌와 안구운동에도 좋아요.”

목감동에서 이사를 한 번도 안하고 27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최 할아버지는 탁구실력도 남다르지만 복지관의 수채화반 청일점이며 클래식 기타도 배우고 있다. “그림은 처음 배울 땐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기타는 배운지 1년 쯤 됐는데 타향살이, 황성옛터 정도는 연주할 수 있지요. 글쓰기도 배워 보고 싶습니다.” 배움에 대한 즐거움, 열정이 놀랍다.

1층에는 건강밥집이라는 식당과 카페 ‘다정’이 나란히 있다. 4층의 책다정 보다 1년 정도 먼저 생긴 다정 역시 복지관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노인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운영을 맡는다. 커피가 주 메뉴인 다정은 노인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의 바리스타는 유병천(71·목감동) 씨. 알고 보니 최민규 씨와 부부다.

“커피 만드는 일은 전혀 힘들지는 않아요. 재밌죠. 평일에는 남편과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옵니다. 화요일에는 바리스타를 하고 다른 요일에는 컴퓨터, 노래, 댄스체조를 배워요. 도시락배달 자원봉사도 하고요.” 부창부수, 어려운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배달 봉사까지 하고 있다는 유병천 씨의 부지런함도 대단하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새청사를 마련한 생명농업기술센터 1층에도 실버 바리스타들이 운영하는 카페 ‘연다정’을 열었다. 연다정에서는 연을 활용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한다. 지난해에는 상담교육을 이수한 노인들이 또래 노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상담실을 경기도내 최초로 오픈했다. 또 부부가 함께 복지관을 찾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 노년에 더 행복한 방법과 노후설계를 강의하는 부부학교를 운영했으며 혼자 사는 남성 노인들을 위한 요리강좌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자연스러운 세대통합을 위해 청소년들이 노인들에게 휴대폰 활용법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가 하면 노인체험 행사도 실시했다. 한편 노인들은 5개월에 걸쳐 발성법 등을 교육받고 보육시설을 순회하며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형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김수진 사회복지사는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돕는 것만이 복지관의 역할은 아니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세대 통합 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Culture & People

서양화가 이선영

소래문학회

연극동아리 '앵셔스'

UCC동아리 '오렌지 나무'





빛의 오솔길 따라 원을 그리는 '자유'

서양화가 이선영

글 유서원

딸은 아버지의 죽음을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색채'와 '상징'을 사용해 삶 혹은 그 너머의 무엇까지 표현하는 화가이기 때문일까. 아버지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그려 놓은 가장 위대한 그림, 만팔이기 때문일까.

화가 이선영(57·하중동)은 그렇게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부재를 겪은 뒤 불현듯 이태리로 유학을 떠난다. 영동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다. 서른, 최승자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연고도 없이 떠났다.

황당했겠지만 어머니는 말리지 못했다. 이선영의 고집과 대책 없음을 그 전부터 겪어왔던 터였다. 공부를 꽤나 잘하고 말이 없던 여중생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도 그랬다. 1970년대 초, 남녀공학이 드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딸자식을 남학생들 숲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던 시절이다. 이선영도 서울사대부고를 택한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그저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한 번도 미술학원에 다닌 적 없는 소녀, 그림 그리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 본적 없는 고3 수험생이 이번에는 미술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말로 부모를 놀라게 했다. 이선영은 그렇게 '홍대미대'생이 됐다. 응용미술과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대학생활은 마냥 좋았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만족감, 마음껏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유로운 대학 분위기가 이선영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 이력서 쓰느라 동분서주할 때 교수들이 던진 "시집이나 가지?"라는 말이 비수처럼 남았다.

든든한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 교원임용시험을 보라고 권했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추

상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정말 신나게, 열심히 5년을 가르치며 배우고 있을 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 주체할 수 없었다. 결혼 속으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이태리에 도착하자 이선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돼 있었다. 고작 스물여섯 시간을 날아왔을 뿐인데, 저쪽에서는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 여자가 이태리에서는 다섯 살짜리 만도 못한 언어를 구사하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바닥을 친다는 게 이런 걸까?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깨달음이 왔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생산성을 키워준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외로움이 있었기에 로마 국립미술아카데미 회화과를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런 절망이 있었기에 이태리에 간지 7~8년 만에 목소리만 듣고는 외국인인 줄 모를 만큼 이태리어에 능숙해졌다. 이태리 생활 14년 동안 여섯 번의 개인전과 30여회에 걸친 단체전, 초대전에 출품할 만큼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낸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태리의 갤러리 화랑주는 이선영의 그림을 보더니 경력이나 학력 따위 묻지도 않고 “개인전을 열자”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어렵없는 일이다. 로마 국립미술아카데미 리노 디 꼬스페 교수님은 “필연적인 자유로움을 향한 돌진인 양, 빛으로 가득한 전율을 응집하는 회화적 탐구”라며 이선영의 전시회를 축하했다.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도 작품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다. 다섯 살짜리 만도 못하던 언어실력으로 건너갔던 이태리에서 열권이 넘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죽음은 삶의 반대인 것이 아니라 그 한 부분, 즉 그 마지막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00년 귀국 이후에도 이선영의 빛은 멈추지 않았다. 2010년에는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 번째 개인전을 열었으며 지금도 작업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이선영. 주제는 시종일관 “빛의 오솔길”이다. 하중동에 가면 파랑, 노랑, 빨강의 색이 ‘영원한 원을 끝없이 그리고 있는’ 그녀의 작업실을 만날 수 있다.

몰입이 이루어지면 새벽이 오는지 밥을 먹었는지 따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림만 그린다.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논다. 고등학교 교사, 귀국 후 5년간 이어진 대학 교수 경력 때문인지, 아니면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인지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종종 작업실로 찾아와 상담을 한다. 기꺼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준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말한다. 그저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라고. 그러면 이미 문제의 반은 해결된 것이라고.

작품이,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추상화가 잘 팔릴 리가 없다. 슬픈 일인가? 그런 것 같다. 작품이 잘 팔리면 좋은 일인가?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돈이 소중하지만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 스스로를 상품으로 전락시키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거면 됐다고 생각한다. 내 일을 걱정하는 일, 어찌 보면 주제 넘는 일 아닌가? 이선영은 말한다. “지금이 중요하다.”

“오직 그림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삶과 그림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설립 20년, 언어의 밭을 일구다

소래문학회



글 연규자 사진 최영숙

지역 내 순수문학동아리인 소래문학회는 1992년 10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문을 열었다. '소래'라는 명칭은 현재 시흥시를 이루는 과거의 군자면, 소래면, 수암면 중 하나의 지명과 시흥의 명산 소래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소래포구 등의 '소래'에서 따 왔다. 소래문학회는 지역 내에서 수시로 생성했다 사라지는 여러 문학 동아리와 달리 더디고 느리지만 끈게 자라는 나무의 모습을 지향하며 성장하였다. 지역 내 활동 위주이나 지역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어서 한번 인연이 되어 들어오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는 다년간 의정활동을 한 정치인을 비롯해 고등학교 교사, 경찰공무원, 회사원, 주부, 의사, 목회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회원들의 면면은 성실한 생활인이면서 문학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글쓰기에 대한 자세만큼은 순수하고 겸손하다. 또 다른 특징은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드러내고자하는 열정만큼이나 상호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행하는 실천의 힘이 모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회원의 절반가량은 문예지와 단행본 발간을 통해 문단데뷔를 거쳤으며 그 중 일부가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 중에 수주문학상 대상수상과 대산창작기금수혜를 받아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문학회에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하였고,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마로니에백일장 역대 대상수상자도 있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완성도 높은 습작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기합평회를 통해 서로의 작품을 비평하고 격려한다. 돌아가며 합평회후기를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하는데 이 또한 새로운 자극이 되어

사유의 깊이를 더해준다.

지역 전통축제인 연성문화제, 예술제인 물왕예술제 백일장과 시낭송회 등을 수회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지역 언론사가 주최한 글짓기대회 및 거모종합사회복지관과 바르게살기시흥시협의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실시한 글쓰기 작품의 심사를 담당하였다.

2000년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새로운 이면의 소래문학회를 보여주며 소수의 마니아층 형성을 이루고 있다. 온라인 회원은 오프라인과 다르게 자유롭게 문학 활동 영역에 참여하며 서로 소통한다. 2004년 9월에는 한 인터넷 검색엔진에 '작가들이 추천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문학동호회 사이트 33선'에 소래문학회가 13번째로 소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기문화재단과 시흥시의 지원을 받아 1993년 동인지『소래문학』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1년 19집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간했다. 7집부터는 회원 작품 외 한국문단에서 개성 있게 활동하는 젊은 시인들의 신작시를 초대시로 게재하면서 문학성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조철형 회장은 올해 '소래문학 20집' 발간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남다른 포부를 내보인다. 여느 해보다 빠르게 1월 정기총회에서 이미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나온 세월의 발자국을 수집해 20년 역사가 담긴 풍성한 동인지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학인만이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어우러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소래문학회는 지역의 예술동아리로서 순수문학을 지켜나가는데 적지 않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열정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문학의 꿈을 버리지 못한 일반인과 문학인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작고 소박하나, 문학의 본령을 놓치지 않는 문학회로 존재하기를 기대한다.





세상에 내 꿈을 펼치다

연극동아리 '앵서스'

글 박종남 사진 김성환

수능성적이 발표되어 희비가 교차하는 수험생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고 있는 12월의 첫날. 교복차림의 고3 네 명이 청소년 수련관 4층 동아리실에 모였다. 시험 준비하느라 일 년 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이 다시 날마다 뭉치게 된 것은 공연을 위해서다.

연극동아리 '앵서스'회원 중 은행고 3학년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올릴 공연을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1월초에 안톤 체홉의 “청혼”을 무대에 올린다. 고3 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동아리 회원들 역시 또 다른 작품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3~4년이 된 회원들은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하고 발탁된(?) 우수 인재답게 그간의 동아리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를 독려하면서 시작된 그들만의 연습.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던 모습과 달리 발성연습에 임하는 자세는 마치 훈련병 같다. 리더의 구호에 맞춰 곧추세운 자세로 목청을 돋우고 있다.

한참 발성연습을 하더니 이제는 배역에 대한 논의가 끝이 없다. 배역의 성격을 파악하고 캐릭터를 잡고 상대 배역과의 관계분석도 이어진다. 마치 자신들의 성격을 말하듯이 술술 풀어내더니 무대 소품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보기에라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흥미롭게 준비를 착착해 나간다. 중간중간 웃음이 피어나는 그들만의 준비는 끝이 없다.

슬그머니 연습실을 나오려는데 어느새 인사를 챙기는 회원들. 참 밝고 활기차다. 그들은 아마추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를 뛰어넘는다. 공연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고 대회 참가도 여러 번 했다. 시에서 치르는 예선을 통과하여 경기도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회원들은 해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력을 다지고 회원들만의 연습으로도 역량을 키워나간다. 어려운 시간

을 내어 연습을 하는 만큼 서로를 꼼꼼히 모니터해가며 실력을 다져왔다. 수시입학을 할 경우 관련학과로 진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용민 학생. 대부분 선배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동아리 신입을 뽑는데 연극부는 동아리 중에서 인기가 단연 으뜸이다. 지원자들이 많아 대기 시간을 못 참고 돌아간 학생부터, 고배를 마신 탈락 학생까지 선발 과정이 치열하다. “의미 있고 보람 있다”는 조승 학생은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했는데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고 괜찮게 생각 하신다”며 공부를 하면서 연극 활동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2010년 8월 계획에 없던 공연이 추진됐다. 공연 준비 기간이 짧아 연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관객들도 여름이라 지루함을 참지 못할 것 같았다. 안성균 학생은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관객들의 웃음을 얻고자 했고 다행히 반응이 좋아 성공적이었다. 동아리에서 여학생들의 비중이 적지만 이수진 학생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연습 당일도 홍일점이었지만 어색함이 전혀 없다. 길거리포스터 붙이는 일과 홍보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일도 마다 않으며 좋아 하는 연극을 하고 있다. 이들의 공연은 주요 관객이 학생들이지만 수련관 주변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관람하기에 더욱 뿌듯하다.

동아리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40여명의 회원들 중 다수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친목을 다지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유지한다. 대학 진학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연극은 본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길이라 한다. 관련학과로 진학하여 꾸준히 더 배워 연극배우로 활동하는 후배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연극 동아리 선배들은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공연을 위해 그렇게 준비 하고 있었다.



영상으로 소통하다

UCC동아리 '오렌지 나무'



역사는 짧아도 탄탄한 회원조직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렌지 나무'는 청소년 UCC동아리다. 회원이 전원 여학생이다. 금남의 조직이 아니건만 간혹 들어오는 남학생들이 반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고 만다. 현재는 2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지원자들은 늘 넘쳐나지만 꾸준히 활동하는 수가 그에 비하여 적은 것은 활동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은 연초 영상물 제작 수업을 시작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 장비를 점검해주는 스텝 역할까지 다양하다. 올해는 환경캠페인 동영상을 제작해 출품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여 회의를 하면서 역할 분담과 친목을 다진다. 사정이 있어 뒤늦게 10월에 선발한 새내기 회원들은 “앞으로 사진 강의를 듣고 선배들이 만드는 동영상을 보고 배우겠다”며 의지를 밝힌다.

“초등학교 때 UCC를 만들어 봤는데 흥미가 있었다”는 김수정(은행중·2)은 학교에서 공문을 통해 동아리 홍보를 하기에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 동영상 콘티 짜는 일부터 자료 수집하는 과정, 현장에 나가 사진을 직접 찍어 오는 일까지 두루두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유현(은행고·1)은 “시각 디자인으로 진학을 할 예정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영상미디어 쪽이 꿈이었어요.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 동아리 활동이나마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정보통신학과 쪽을 택하기는 했지만 전혀 무관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상물 제작을 하겠다”는 차영주(은행고·3)는 이미 수시로 대학에 합격이 된 상태였다. 영주 학생은 현재 후배들이 기말고사로 바쁜 와중에 혼자서 날마다 나와 공연하는 팀들을 챙기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미디어 관련학과에 수시 접수를 하면 진학이 용이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설명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을 하면서 대학 진학도 쉬워지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동아리 회원들의 공연 지원은 주로 사전에 공연팀의 준비과정을 영상물로 제작해 공연 당일 오픈닝으로 상영하고 조명이나 음향시설 등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준다.

카메라 무게조차 가늠 못하고 작동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새내기 회원들과 이제 곧 동아리를 떠날 최고참 선배가 모여 카메라 작동법을 익혀보는 어설피지만 풋풋한 시간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시흥 리포트

도서관 희망씨
희망마을 사업
시흥시 사회적기업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기적

신천도서관 자원봉사자 '도서관 희망씨'

글 백인숙



국내 최초 시민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한다는 신천도서관. 전문 사서나 상근 직원 한 명 없는 공공도서관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안고 찾아갔다. 아무리 그래도 공공도서관이 다 똑같겠지라는 선입관이 빗나간 걸까? 주책들과 근접해 있어서 인지, 아니면 신천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지상 2층의 아담한 규모 때문인지, 웬지 공공도서관에서 느낄 수 없는 친밀감이 밀려왔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다. 경험상 공공도서관은 직원들 표정에서 나오는 무표정과 뭔가 절제되어 있고 때론 엄숙함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곳에선 훈훈함이 묻어났다. 입구 오른편에 있는 나무에 눈길이 갔다. 주렁주렁 매달린 메모지엔 뽀뽀글씨들이 가득했다.

“다른 도서관은 집이랑 먼데 신천도서관이 생겨서 좋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해주어서 좋다”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는 도서관이 좋아요”

“책 많이 볼 수 있고 책 읽는 게 재미있다”

도서관이 생겨서 좋은 점을 주민들이 적어놓은 거였다. 메모를 하나하나 읽다보니 주민들에게 참 사랑받는 도서관이라는 걸 눈치 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도서관과 달리 훈훈함이 느껴지고 사랑받는 이유는? 그 이유의 실체가 바로 앞에 있었다. 시민자원봉사자들이



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주민들에게 상냥하게 책을 대출해주고 있는 봉사자들. 사무실에서도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천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이지요. 봉사자들 명칭이 ‘도서관 희망씨’입니다. 대출에서부터 책정리, 프로그램 개발, 청소까지 희망씨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희망씨들의 노력으로 1주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적’ 아닐까요?”

‘도서관 희망씨’ 회장 이옥금(51) 씨.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시흥도서관활동가 과정을 수료한 18명을 주축으로 ‘도서관 희망씨’ 동아리를 결성했다. 이듬해 1월 18일 시흥시에서 7번째 공공도서관인 신천도서관이 개관하여 희망씨들에 의해 꾸러지게 되었다. 지금은 60여 명의 희망씨들이 프로그램개발팀, 도서홍보팀, 실무교육팀, 도서보수팀, 청서관리팀으로 나뉘어 봉사를 하고 있다.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자도 활동 중이다.

“제가 회장을 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바로 희망씨 회원들이죠. 희망씨들이 도서관의 모든 일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서류작성도 다 처리해야 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최선을 다하고 업무에도 능한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맙죠. 여러 사람이 생각을 나누다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도서관이 잠자고 있는 인재들을 끌어냈죠. 열정들이 대단해요.”

희망씨 대부분이 30~40대 주부다보니 그들의 꼼꼼함이 도서관 곳곳에서 엿보인다. 대출해가는 분들에게 그 달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나눠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고 휴지 한 장 떨어져 있지 않은 도서관은 깔끔 그 자체였다. 곳곳에 놓인 화분은 건강한 초록빛을 더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중에 외부강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희망씨들이 재능을 기부해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희망씨는 한달에 한번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아대상 책놀이터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논술, 독서평론, 글쓰기 교실과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 문학강좌 등 달마다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이끌어냈다. 1층 유아자료실은 책상과 의자를 치우면 훌륭한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이곳에선 마당놀이극, 시낭송회, 북콘서트, 과학체험극 등 각종 공연이 펼쳐진다. 3층 하늘쉼터에선 여름의 별을 보며 '반딧불이 책읽기' 행사를 열었다.

취재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도서관을 들어서고 있었다. 평일 하루 평균 80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오고 주말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거점으로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방을 개방하고 있다. 희망씨들은 앞으로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이라며 도서관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다.

2층 종합자료실 야외테라스에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있는 신천초등학교 6학년 김예진, 강채원 학생을 만났다. “우리 동네에 갈 곳이 없었는데 도서관이 생겨 너무 좋다”며 활짝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천도서관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



‘도서관 희망씨’가 되려면

지역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된다. 단, 주1회 2시간 이상 봉사할 수 있어야 하며, 1차 교육(8차시)을 마치고 2차 심화교육(10차시)을 수료해야한다.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희망씨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친절교육은 기본이고 문학기행, 독서토론, 전문가특강 등 자아 성숙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말에 봉사할 가족 봉사단도 모집한다.

문의 : 031) 310-2570

행복 가득한 마을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글 박종남

‘희망마을 만들기’, 낯설지 않고 어디선가 들어보직한 단어가 된 것은 오래지 않다. 아직 많은 이들이 “그게 뭐야” 하는 반응을 보인다. 쉽게 설명하자면 새로운 형태의 ‘새마을운동’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공통점이라면, 주민 스스로가 진행하며 모아진 생각들을 여러 분야에 접목하여 다양한 문화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마을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다. 평범한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마을의 독특한 삶의 방식들을 풀어 소통하고 재발견하는 일이 곧 희망마을 만들기다. 시흥시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펼쳤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복원·형성을 도모하여 주민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내걸었다. 1년차에 주민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2010년에는 시설 정비 사업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 20여개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진행됐다. 범위도 넓어지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도 확연히 늘었다. 12월 9일에는 시흥시청로비에서 일 년 동안 이루어졌던 사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가졌다. 그 숱한 과정들을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지만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호흡을 맞추어 진행된 사업이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인쇄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교육과정,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일, 주민들의 소소한 소통을 통한 친밀감 등은 현장에서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만 느낄 수 있기에 아쉬움으로 다가온 전시회다. 변화를 꿈꾸는 주민들이 모여 마음의 담을 허물어 함께 소통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단결하여 새로움을 만들어낸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그들의 수고로운 과정을 뒤 따라가 보자.

테마사업 골목이야기-군자동 '시나브로 도일이야기'

58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군자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 도일 시장이야기를 기록으로 담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군자동에 소재한 열녀문과 삼신우물 그리고 기마터를 발굴하여 역사를 재조명하고 주변에 이야기 터를 조성하는 것을 사업으로 정한 군자동 주민들. 군자동의 주민화합이 첫째 목적이었다면 번성했던 옛날의 명성을 좇아 영화(榮華)를 되찾고자 했으며 더불어 맛별이 부부와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바꾸고자 했다. 특히 노인세대가 많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마을의 구심점이 필요했으며 이야기 발굴에 있어 어르신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믿고 세대간 소통을 위해 사업을 펼쳐가기로 했다.

이들은 2011년을 너무도 바쁘고 보람 있게 보냈다. 사업계획서를 내는 순간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펼친 사업이다 보니 인력과 사업비 부족이 동반 됐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부터 회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사전 소통의 미비가 그 주요원인이었지만 이 엇박자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참여 회원들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의견을 내고 토의했다. 두 달 동안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모여서 지남한 활동 회의를 했다.



어르신들을 만나고 도일시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역사를 알아내는 일은 재미를 주는 일이었고 흥미로웠다. 문화유산 발굴을 하다 보니 너무도 많은 유적과 숨은 이야기들이 있어 관심은 곧 자긍심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야기 터를 정화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노력봉사는 기본이었고 시설 설치비도 회원들이 부담하게 됐다. 여기저기에서 응원의 손길을 보태고 격려하여 힘을 냈고 사업을 진행했다. 참여한 주민들이 흘린 땀방울은 아름다운 화단으로 변했고, 깔끔한 쉼터가 생겨났으며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도 영글었다. 회원들의 화합에 주력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에 비중을 두다보니 음식잔치도 끊임이 없었다. 마을 어르신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야기 터를 정화하면서 집에 두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꾸미기로 했다. 동네 어르신에게 집에 쓰지 않는 항아리 없냐고 무심코 물었다. 당일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튿날 입구가 깨진 항아리 두 개를 들고 나타났다. 며느리 몰래 입구를 깨뜨려 쓸모가 없으니 버리자고 하여 항아리를 가져 온 것이다. 웃음이 낫지만 얼마나 따뜻한 관심인지 회원들의 감사가 이어졌다.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도 다반사. 지나가던 어르신이 “허리 다친다. 조심해라”하고 당부하시는 말에 모두가 감격했다.

회원들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친동기간처럼 친밀도를 높였고, 관심이 없던 지역주민들조차 적극적으로 임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보고 구경꾼에서 관심을 보이는 참여자로 변했다. ‘시나브로’공동체는 군자동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였고 주민들과의 소통과 회원들의 수고로움을 더하여 마침내 ‘군자동 보물 이야기’라는 책 한권과 함께 그 성과를 드러냈다.

“끝나고 나니 시원섭섭”하다는 정옥자 대표는 “사회 환원의 개념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보람찬 일이었다”고 감회를 밝힌다. 유관 단체들과의 새로운 관계형성과 주민들의 지역 관심도 상승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 믿는 ‘시나브로’ 회원들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새로운 것을 일구어내고 많은 것을 얻어 낸 행복한 나눔이다.

교육사업 - 포동 새우개 ‘찾아가는 이야기 마을마당’

다른 사업과 달리 지역 활동가와 새우개 주민들이 결합하여 진행한 교육사업이다. 자연부락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형 공장들이 난립하여 전형적인 마을공동체 모습이 사라져 버린 새우개마을. 별다른 것 없는 일상에 젖어 생활하고 있는 부녀회원들이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살아온 이야기를 수다로 풀어내고 언제 해 봤는지도 까마득한 글쓰기를 위해 머리를 굴렸고 또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다.

직장을 다니는 회원들을 위하여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노인 정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외지인이 드나드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고 마을 이야기를 아는 대로 전하여준 할머니들도 한몫 거들었다. 부녀회원들은 개인사 책을 만들어냈고 동네역사이야기 책도 엮어냈다. 대형 마을 지도를 그렸으며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직접 해설사가 되어 포리초등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마을투어도 나섰다. 부녀회원들은 처음에는 이 귀찮은 일을 괜히 시작했다 말했지만 어느새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할 수 있겠냐 했다.

책으로 엮어낸 작품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잘 할 것을 하는 미련과 후회가 남는다”며 아쉬움을 보여주기도 했다. 너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담당했던 활동가들도 “사람을 얻은 것이 제일 큰 수확”이라며 부쩍 친해진 그들만의 우정을 과시한다. 적은 예산을 들여 마을 주민들 200여명의 잔치를 주도했던 부녀회원들의 저력이 밑받침이 된 새우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웃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이번 사업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마을 만들기를 시도하겠다는 포부를 보인 새우개 부녀회원들. 그들이 있어 새우개 마을에도 즐거운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 세운 ‘착한 기업’

시흥시 사회적기업

고용을 위해 빵을 판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험이 한창이다. 십수 년 후에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사회적기업을 설명할 때 흔히 쓰는 이 말은 ‘사람중심,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담고 있다. 반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인건비 지원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신규 선정을 중단하고 대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사회적기업에 뛰어 들어 인건비를 지원받다가, 지원이 끊기면 직원을 해고하거나 도산하는 업체들 사례가 종종 보고됐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 오던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해당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장논리로 사회적기업을 내모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우세하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개념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등장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공동체 운동이나 생활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기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추구하는 한편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1년 6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1537개에 달한다. 이 중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532개이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사회적기업이라 불리는 곳이 1005개이다. 사회적기업은 ‘전체 노동자 중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일자리제공 사회적기업)하거나 ‘전체 서비스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해야 하며,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심사한 후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당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회적기업 27곳 실험 중

2011년 12월 현재 시흥시에는 6개의 사회적기업과 16개의 예비사회적기업, 5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지난 10월에는 시흥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설립됐다. 경기도사회적기업협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흥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간의 중간 지원 역할을 한다. 또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는 일도 한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홍승미 국장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모두 개념은 같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설명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인증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자치단체가 한다. 이에 반해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며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이들에 대한 총괄운영 및 통로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돼 토론회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진행 중이다. 마을기업의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 5명 이상이 운영주체로 참여해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도 했다.

여러 지자체의 사회적기업들은 민간단체인 사회적기업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을 제안하고 자립방안, 공격적 마케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시는 사회적기업민간네트워크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NGO 활동가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모임을 갖고 활동방향 등을 논의한다.

“우리시 사회적기업의 80%는 산모도우미 파견, 청소용역 등 사회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 유통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있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요.” 홍 국장은 사회적기업의 분야를 넓히는 것도 센터가 할 일이라며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들이 사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프로보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한 전문성 기부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흥에는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기업컨설턴트, 사진작가 등 18명의 프로보노가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 일자리 만들고 이윤 일부 사회 환원

시흥시 최초 사회적기업 ‘시니어인력뱅크’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시니어’를 모토로 한 (주)시니어인력뱅크는 2008년 4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시흥시 최초의 사회적기업이다. (주)시흥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던 노인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을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의 보안당직자 및 청소부로 파견하는 일자리창출형 기업이다.

시니어인력뱅크는 현재 관내는 물론 안산, 부천 등 인근지역에 60여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허종 대표이사는 “일을 갖고 싶어 하는 노인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경쟁업체가 많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그나마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배려해 주는 분위기라 다행스럽다고 한다. 제조업체와 달리 제품의 판로확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안정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학교에 대부분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보안당직 업무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해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못 참아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 노인들은 이곳이 마지막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허종 대표이사는 노인들의 경우 이직이나 사직을 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사회가 노인들만의 장점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제화 논의도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니어인력뱅크 이만균 감사도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창출”이라며 활기 있는 노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인력뱅크는 지난 12월 23일 기업 이익금의 일부인 300만원을 시흥시1%복지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주)시니어인력뱅크 8044-7080



빵과 커피로 ‘행복 굽는’ 다문화 맘

다문화여성들의 일터, 마을기업 ‘해피맘 나눔가게’

고소한 쿠키가 익어간다. 커피향이 향긋하다. 그날 만든 빵이 숨을 쉰다. 우리밀로 만든 빵과 쿠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유통하는 공정무역 커피가 있는 곳. 은행동 대우3차아파트 상가에는 ‘착한’ 빵과 커피를 파는 가게 ‘해피맘 나눔가게’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시흥시가 지원하고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이 모 법인인 해피맘 나눔가게는 지난해 4월 선정된 마을기업이다.



매장을 지키고 있는 김수화(37·도창동) 씨는 한국에 온지 8년 된 조선족 여성. 6살, 4살 남매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침 9시30분부터 4시까지 해피맘에서 쿠키를 만들고 빵과 커피, 차를 판매한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 힘들지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녀는 이제 한국말도 능숙하다.

해피맘 나눔가게에서 판매하는 빵을 만들고 있는 나머지 다섯 명의 여성들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가정의 여성.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아직 자녀들이 어린 젊은 엄마들이다.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여성경제활동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제과제빵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다.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하려면 매장이 넓어야 하잖아요. 아직은 그럴 형편이 못돼 작은자리 조리실에서 빵을 만들어 매장으로 가져와요. 쿠키는 오븐을 놓고 매장에서 직접 굽고요.”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류윤희 복지과장은 마을기업 선정 후 2년 동안은 일정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단골도 많이 생겼지만 아직은 월급을 많이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해피맘은 수입밀가루에 비해 두 배 이상 가격이 비싼 우리밀을 사용해요. 첨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짧아요.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전날 만든 빵은 할인해서 팔아요. 그러니 생산성이 낮은 편이죠.”

다행히 시흥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주선으로 포동에 있는 우리밀 유통업체 ‘대신유통’과 협약을 맺어 예전보다 저렴하게 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안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단체주문이 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마을기업 해피맘 나눔가게는 매출을 늘려 자립도를 높이고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화탐방

고려의 숨결을 느끼려 떠난
'1박2일'의 여정



고려의 숨결을 느끼려 떠난 ‘1박2일’의 여정

글 박미영(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고려시대의 유적을 찾아 떠난 길이었다. 시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9명의 1박2일 여정이다. 연천을 거쳐 파주, 강화를 돌아보기로 했다. 조선시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 영토를 아울렀던 또 하나의 나라가 고려이건만 수도인 개성이 북쪽에 있다는 이유로 우린 고려의 유적지와 유물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몇 군데 남아있는 유적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일정을 잡아 빠듯하게 다녀오기로 했다.

더불어 시흥에 남아있는 고려시대의 유적인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다. 공부해도 끊임없는 배움의 갈증들을 해소하고자 더불어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도 겸해서다. 문화원에 모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고 호기롭게 출발했다.

고려 태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송의전지’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고려 태조의 위패를 모신 송의전이다. 송의전은 이전에 한번 다녀간 곳이다. 그래서 좀 더 친근하다. 겨울의 입구에 선 날씨라 다소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 답사는 항상 마음이 설렌다. 들어가는 입구 어수정에서 차가운 약수 한 모금을 마신다. 눈길을 잠깐 돌리니 왕건의 31세손 왕무임 할머니가 만드는 고려 충렬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내린소주를 파는 고려가든이다. 현재 어수정 앞의 농산물 판매소는 고려 왕족의 후손들이 제사를 봉안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런 모습에 왠지 짝한 마음이 들게 한다. 위쪽 길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햇살아래 고즈넉한 송의전이 우리를 반긴다. 조선조 종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북쪽에 있다는 이유로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다. 송의전지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 왕조의 종묘사직을 없애기 위해 송도의 종묘에 봉안되어 있던 고려왕들의 위패를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 보냈는데, 배는 물 흐름과 반대로 임진강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며 스스로 삭녕 지역까지 올라가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 지금의 동이리 썩

은소(승의전 앞을 흐르는 임진강에 움푹 패인 소가 있다고 함)에서 하루를 정박한 후에 3km 아래에 있는 양암사(仰巖寺) 석벽(아미산 잠두봉) 아래로 떠 내려와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왕 씨 자손이 남몰래 위패를 거두어 이곳에 묘를 짓고 이를 봉하였다고 전한다. 그날 밤 심한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양암사를 때려 절은 형체를 알 수 없게 파괴되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 버렸다. 이후 개수와 중수를 거듭하다 한국전쟁으로 건물이 전소되어 1971년에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 다음해 재건하였다. 그러나 재건 과정에서 원 승의전지에 대한 고증 없이 건립되어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승의전지” 및 주변 일원에 대한 발굴(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승의전 담장너머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 잠두봉 절벽에 마전 군수였던 한문홍이 승의전 수리를 마치고 나서 옛 왕조의 쇠망의 무상함을 읊은 칠언절구 시와 태조왕건의 친필, 개성에 있는 태조왕건의 무덤과 동상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군자봉성황제 '주신' 경순왕릉

우리시의 군자봉성황제 전설에서 만나는 경순왕을 만난다 하니 더 발길이 빨라지는 것 같다. 신라의 막바지와 어지럽던 후삼국시대에서 고민하고 고뇌했을 수많은 영웅들 중 경순왕은 어떤 이는 나라가 망하고 그래도 대접받으면서 왕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왕이 아니냐라고 했듯이 나라를 그대로 들어 고려에 넘겨주고 태조로부터 유화궁(柳花宮)을 하사받았으며, 낙랑공주(樂浪公主)를 아내로 맞고 정승공(政承公)에 봉해졌으며, 경주(慶州)를 식읍(食邑)으로 받았다. 그러나 승하한 후 신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 연천군 백학면 고랑포리에 묻혔다. 신라의 왕 중 도성 경주를 떠나 다른 곳에 묻힌 유일한 왕이기도 하다. 경순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은 양 옆에 철책으로 둘러쳐지고 빨간색 지뢰경고가



붙어있는 민통선지역이다. 웬지 분단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失傳되었다가 영조23년(1747년)에 후손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실전된 것을 1973년 이곳을 방어하던 육군장병에 발견되어 정비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10여 년 전만 해도 주민증을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민통선 지역이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다. 비석에 무수히 나 있는 탄환자국이 분단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겨울해는 너무 짧아 아쉽다. 두 곳만 둘러 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몇 군데 더 들릴 예정이었지만 파주로 가서 석불입상을 보고나면 강화도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이 처음이지만 석불입상의 사진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몇 번은 와본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고려 선종(宣宗)은 자식이 없었다. 세번째 비(妃)로 원신궁주(元信宮主)를 맞이했지만 역시 태기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궁주(宮主) 꿈에 두 도승(道僧)이 나타나 “우리는 장지산(長芝山)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이다. 매우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하더니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깨어 난 궁주가 임금께 아뢰어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니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종(宣宗)은 이 바위에 두 도승을 새기고 절을 지어 불공을 드린다. 그러자 그해 왕자인 한산후(漢山候)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1954년 이 용미리 석불을 보러 와서 왼쪽 부처님 어깨 위가 약간 허전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 한마디 했더니 아침하는 무리들이 당장 그 위에 아기부처를 만들어 붙였나? 석조 7층 이대통령 기념탑까지 건립 ‘미륵불 이대통령각하 기념탑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아기부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박사 몰락 후 아기 부처는 내려져 용암사 경내 한 귀퉁이에 모셔져 있다.

짧은 저녁해를 뒤로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강화도 고려유적을 찾아 갈 길을 재촉했다.

고려 고종 홍릉

강화도 옛 지명을 딴 ‘갑비고차’ 펜션에서 일박을 한 우리들은 서둘러 둘째 날 답사를 시작했다. 강화도에 남아있는 고려의 유적을 찾아갈 요량이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진달래가 일품인 고려산의 고종 홍릉이다. 제법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한참 올라간 곳에 안내판이 있다. 일

부러 찾아 나서지 않으면 잘 만나기가 어려운 곳이다. 46년간이나 재위한 임금의 능 치고는 참으로 초라해 보인다. 맨 윗단에 있는 봉분을 보면 민묘나 다를 바 없어서 안내판이 없었다면 지나다가 보더라도 이곳이 고려왕릉이라고 알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왕릉을 지키고 있는 문인 석의 모습에서 마을입구에 서있는 장승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 최 씨 무신정권 집권시기였으며 밖으로는 거란·몽골의 침입 등으로 고통 받았던 시기이다. 고종 18년(1231)부터 여러 차례에 거친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국토는 초토화되고, 인명과 문화유산의 손실 또한 매우 컸다. 고종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려 대장경』을 만드는 등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개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화도에 따로 잠들어 있다. 고려의 고종을 만나고 가는 길은 쓸쓸했다.

강화고려궁지

강화의 고려궁지는 몽고의 침입 때 고려가 잠시 이곳 강화로 도읍을 옮겼을 당시 궁궐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 고려궁지는 고려 고종 때부터 약 40년 정도 궁으로의 역할을 했다.

당시 고려는 무인정권의 실력자 중의 한 명이었던 최우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나 고려가 몽고에 항복을 하고 결국 강화의 고려 궁은 몽고의 요구로 헐리게 되었다.



강화도는 고려궁지와 주변 사적들을 함께 어울려 고려궁지 특화가를 만들었다. 고려궁지 인근에는 조선 철종이 유배시절 살던 집인 용흥궁과 1900년 건립한 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산성 북문 등이 몰려 있다. 이곳을 모두 둘러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강화성당은 공사중이어서 외관만 볼 수 있었다.

현재 고려궁지에는 정문 격인 승평문과 강화유수부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 이는 고려궁의 흔적이 아니다. 이 건물들은 조선시대 강화의 동헌이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라 한다. 특히 외규장각 건물은 조선 정조 때 왕실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어람용 의궤를 보관하던 곳으로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갔고 최근에 임대방식으로 2011년 4월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되돌아 와 전시되었다. 문화재를 지키지 못해 반출되었던 귀중한 유산이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14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고려대장경의 강화선원사지

무인정권 최고의 집권자인 최우가 대몽항쟁의 정신적지주로 삼고 불력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자 창건한 나라의 사찰 격으로 여기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팔만대장경 목판을 조각 봉안하였다 한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봉안되었는데 조선태조 7년 서울로 옮겼다가 다시 세조 2년 해인사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빈터에 올라 몽고의 항쟁에 즐기치게 저항하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기도와 간절한 마음들이 묻어나는 듯하다.



후손에 의해 복원된 '허유전 묘'

몇 곳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넘었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 명신이었던 '허유전 묘'를 둘러보기로 했다. 기초지식은 고려시대의 봉분인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 묘제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는 것 정도이다. 시흥시에 소재한 이숙번선생의 묘도 사각형의 봉분으로 되어있어 고려시대의 묘제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조상의 묘를 찾기 위한 후손들의 숨은 노력이 배어 있었다. 이 묘는 1987년 공의 23세손 되는 허관구(75세) 선생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원래 선생은 강원도 홍천 태생으로 초등학교 교편생활을 하시다 정년퇴임 하신 분으로 두 내외분 꿈에서 현몽하는 대로 오랜 기간 해몽하고 발품을 팔아 이곳 강화도에 이르게 되었고 드디어 땅속에 묻혀있던 '허유전묘'라는 표석을 발견하게 되어 오랜 기간 실전되었던 조상의 묘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묘가 땅속에 묻혀있던 관계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려의 묘제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선생은 1995년 아예 이곳으로 이사하여 재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마비증세로 설명이 어려운 가운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조의 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그대로 전달해주셨다. 그 열정에 진정한 박수를 쳐 드렸다. 그런 노력들이 역사를 그대로 이어올 수 있는 저력인 것 같다.

이제 여정의 마지막이다. 좀 더 욕심내서 돌아볼 걸 하는 아쉬움이 든다. 걱정하고도 나서기 쉽지 않은 길이어서 더 그런 것 같다. 해가 짧아서 더 돌아보기도 어려웠다.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고려의 500년 흥망성쇠를 이틀 만에 느끼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시흥에서 교육 불씨 키워 독립앞장

교육자 최금렬 선생

글 박종남

진정한 교육자 최금렬 선생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은 무기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깨우쳐 사상적으로 투쟁하여야만 한다는 신념을 가진 최금렬(1901~1963) 선생. 후학을 양성하는 일만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이라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학교 설립에 자신을 바친 그는 시흥지역 교육계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서울 태생인 그는 학생 신분으로 3·1운동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퇴학을 당하여 잡지사에 근무하게 된다. 잡지사를 그만두고 오지로 생각한 시흥군 군자면에 와 군자학원을 설립하여 교육계에 발을 들였다. 1924년 군자초등학교가 개교하자 상경하여 1925년 배재고등학교에 편입, 1927년에 졸업하게 된다. 잡지사에 근무하면서 저녁에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꿈을 펼쳐나갔지만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그를 내몰았다. 1938년 안양 1동에서 학원을 설립하였지만 또 다시 감시의 눈을 피해 시흥군 논곡동으로 옮기게 된다. 논곡리에서 꿈에도 소원하던 해방을 맞았다.



군자고등국민학교 1회 졸업
(1953년 3월 27일)

1947년 학원이 폐쇄되어 안산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무지리에 소성고등공민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교육을 어어 갔다. 한국전쟁이 나자 1950년에 월곶리로 와서 군자고등공민학교를 개설했다. 이듬해에 지금의 장현동 새재마을인 장현초등학교 터에 학교를 이전하였다. 건물은 농사용 창고를 수리한 초가로 3칸이었다. 인근의 학생들이 몰려들자 교실이 부족하였고 1952년도에 현 군자중학교 자리로 옮겨 4개 교실을 건립한다. 전쟁 후라 물자가 귀하던 시절 재물을 구하여 교실을 늘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마저 팔아서 보탬다. 문교부에서 1954년도에 고등공민학교를 공립학교로 인가를 내준다고 하자 그는 군자중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주변에서 사학으로 남자고 만류했지만 학생들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배우는 공간이 되려면 반드시 공립학교가 되어야 한다했다. 그는 그의 전부인 학교를 떠나 월곶 근처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최궁렬 선생 선양사업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그의 뜻을 기리고 후학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1989년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장학회는 1989년 군자중학교 교정에 선생의 공적비를 세웠고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군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공적비 제막식

또한 시흥문화원과 함께 선생의 업적과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최궁렬 선생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의 참교육 정신을 보고 배운 제자들은 백발이 되었고 남아 있는 제자들의 수도 적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 있는 지금 그를 기리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역경들을 헤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키며 온몸을 바친 최궁렬 선생. 시흥 지역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계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교육자상이다. 선생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이 되어 그의 참 뜻을 기리기를 바란다.

제자 이형수가 본 최궁렬 선생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무거움이 주변을 고요하게 만든 흐린 날 오후. 최궁렬 선생의 업적을 들어보겠다고 무턱대고 찾아가 만난 제자 이형수(75, 군자동) 씨.

멋쟁이 모자를 쓴 그는 거동이 불편하여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내를 잠시 지인의 집에 기다리게 하고 어려운 시간을 내줬다. 그는 군자고등공민학교 2회 졸업생이다. 1회 졸업생은 모두 7명이었는데 2명만이 생존해 있다. 2회는 9명의 여자를 포함하여 모두 33명이나 된다.

어린 시절이라 선생님의 사는 형편이나 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최궁렬 선생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월곶리 출신의 안문옥 선생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노라 했다. 최 선생이 세 들어 살던 집주인 아들이던 김중연 씨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주어 그는 뒤늦게 가슴이 많이 아팠다.



군자중학교

정덕종이라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사정하여 농촌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한 새재마을학교. 군자고등공민학교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흙바닥에 통나무 의자를 깔고 겨우 수업을 했다.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군자리로 학교를 옮기게 되고 교사를 짓기 위한 재목을 구하러 다녀야 했다. 당시는 산에도 나무가 없었고 들판에도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버드나무가 고작이었다. 최 선생은 시간이 나면 들판을 쓰다지며 나무를 구했다. 주인을 수소문하여 사정을 얘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자르고 옮겨 건물을 지었다. 버드나무가 재질이 약하고 물에 잘 썩는 줄 알면서도 대안이 없었다. 1학년 때 한문 수업을 받은 것이 최 선생에게 받은 수업의 전부였지만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의 소통을 통해 사제 간의 정이 쌓였다.

처음엔 새재마을에서 군자리까지 걸어가서 학교 터를 닦았다. 집에서 수수깡과 새끼를 가져와 흙벽을 치고 바닥도 만들었다. 안도일의 이득섭 씨가 이름난 목수였는데 인건비 없이 건축 일을 도맡아 줬다. 지붕은 미국부대에서 나오는 깡통을 펴서 슬레이트로 만든 깡통지붕을 올렸다. 그렇게 교실 4개동이 생겨 1952년 현 군자중학교 자리에 개교를 하였다. 힘든 일이었지만 배움을 위한 필수 노동이라 여겼고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학생들 손으로 직접 지은 학교라 애착이 남다르기도 했다.

최 선생님과과는 협궤열차가 다니던 시절 여주의 영릉까지 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날마다 학교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스승이었다. “최 선생님이 부친에게 물려받은 땅이 서울에 있어 사모님이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팔아서 학교 짓는데 몽땅 헌납했지.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던 사모님이 보파리 장사를 나선거야. 사기그릇을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팔고 다녔지.”

최 선생의 빈한한 생활은 학생들의 졸업식에도 드러났다. 양복에 매고 온 넥타이가 학생들 눈에 이상하게 비쳤는데 자세히 보니 넥타이가 아니라 땀기였다. 철없는 학생들은 그냥 웃고 넘긴 일이다. 집안 돌보는 일보다 학교 짓는 일에 몰두했는데 그 학교를 공립으로 바꾸면서 최 선생은 학교를 떠났다. 문교부에서 농촌 읍·면 단위에 중학교를 하나씩 인가해 주는 정책이 수립됐다. 사립인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려면 모든 시설물과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하여

야 했다.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선생은 인가신청을 했다. 지역의 유지들이 사비를 보태 테니 사립학교로 인가하자고 했지만 배우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학생들이 쉽게 배움의 길에 들어서게 하려는 의지로 공립화를 추진했다. 문교부에서 오학환 교장을 발령 냈고 교사들도 정식으로 발령받아 오자 자격증이 없는 최 선생은 명예교장으로 남아달라는 부탁을 뿌리치고 학교를 떠났다.

“평생을 바쳐 만든 학교를 떠나시는데 지금의 아주아파트 자리가 그 때는 언덕이 높았거든. 그곳에서 학교를 돌아보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셨지”하며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한다. “오로지 학생들 공부 시킬 생각만 하던 양반이라 집도 없었지.” 다행하게도 당시에 소래염전지청장을 하던 김인준 씨가 최 선생에게 염전 사택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보조해 주어 생활했다고 한다.

1963년 돌아가실 때까지 교육열을 식히지 못하여 시간만 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다는 최 선생. 그의 별세는 지인들과 제자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학창시절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 제자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으로 교육하셨던 참 스승의 교육이 그리워졌다. 숭고한 스승의 뜻과 태산 같은 공로를 기리고자 작은 정성들을 모아 장학회를 만들고 또 선양사업을 하게 됐다. 갯골생태공원 조성으로 월곶동 섬산에 있는 최 선생의 묘소를 이장하여야 한다는 소식에 장학회 회원들이 500여명의 탄원서를 모아 최공렬 선생 선양사업에 나선 것이다. 묘소를 이장하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 묘비석이나 기념비석 하나는 남겨두고 싶다는 그.

안타깝게도 최 선생의 제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어 마음은 급하지만 선양사업을 통하여 시흥 지역의 참 교육자로 많은 사람들이 최공렬 선생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중등교육의 씨앗을 시흥에 뿌려 풍성한 열매로 가꾸어 낸 최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제자들의 선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시흥문화원 & 최공렬선생 선양사업추진위원회
업무협약식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지 마라



글 이상범(국단 기린 대표)

우리 동네 집중에서 제일 큰 집이 지어졌다. 우리 동네에 박물관이 들어섰다. 우리 동네에 식물원과 동물원이 들어섰다. 우리 동네에 보물창고가 지어졌다. 우리 동네에 만리장성이, 콜로세움이, 피사의 사탑이, 베드로성당이, 피라미드가 세워졌다. 우리 동네에 로켓 발사대가 설치됐다. 우리 동네에 우주선이 내려앉았다. 우리 동네에 타임머신이 만들어졌다. 우리 동네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찾아왔다. 우리 동네에 석가모니, 예수, 공자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동네에 간디, 만델라가 찾아오셨다. 우리 동네에 칭기즈칸, 나폴레옹이 찾아왔다. 우리 동네에 세종대왕, 이순신, 김구, 함석헌, 김대중, 노무현, 제정구 선생이 찾아오셨다. 우리 동네에 공룡이 찾아왔다. 우리 동네에 봉황이 날아들었다. 드디어 매화동에 도서관이 들어섰다. 얼마나 염원하던 도서관인가. 얼마나 고대하던 신세계인가.

혹자는 불평한다. “매화도서관은 너무 작다”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세상에 작은 도서관은 없다. 세상 모든 도서관은 다 크다. 도서관은 책을 모아놓는 곳,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서고書庫가 아니다. 도서관은 문이다. 우주로 통하는 문이다. 열고자 하는 쪽으로는 다 열리는 문이다. 도서관은 길이다. 세계로 연결된 길이다. 도서관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 통과하는 곳이다. 도서관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정거장이다. 종착점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도서관은 옛사람과 미래 인류가 함께하는 만남의 광장이다. 만났다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는 곳이다. 도서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다. 엮혔다 풀렸다 하는 끈이다. 꿰졌다 이어졌다 하는 끈이다. 도서관은 꿈이 자라는 곳이다. 상상력이 크는 곳이다. 도서관은 깨달음을 얻는 곳이다. 꿈의 크기는, 상상력과 깨달음의 크기는 도서관의 크기와 아무런 상관없다. 상상력을 키우는 물리적 공간은 상상의 크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매화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될지 큰 도서관이 될지는 매화동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다.

어떤 이는 말한다. “아이들은 좋겠다”고. 매화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다. 세상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면 그 도서관은 어린이만을 혹은 어른만을 위한 도서관, 편협한 도서관이다. 어른이래서 어린이 책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어린이래서 어른 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가 이해하지 못할 책이 있을지언정 읽지 말아야 할 책은 없다. 해독되지 않는다면 그 모양새라도 살펴야 한다. 냄새라도 맡아야 한다. 도서관은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궁금하고 복잡한 일, 해결해야 할 일은 어른에게 더 많기 때문이다. 상상하고 고안하고 풀어야 할 과제들은 주로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책보다는 자연과 더 친해야 한다. 아직 자연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는 자연이 가장 좋은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자칫 어린이들의 감옥이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자연에서 배울 만큼 배운 어른들이 그 다음 단계로 찾아가야 할 곳이다. 얽히고설켜 복잡다단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찾아 달려가야 하는 곳이다. 어린이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길 곳이 절대 아니다. 매화도서관은 결코 어린이 도서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화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주민 모두가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동장님, 통장님, 아파트 소장, 부녀회장, 청소 아주머니, 관리 아저씨, 목사님, 세탁소 주인, 빵집 제빵사, 주점 주방장, 카페 바리스타, 슈퍼 사장님, 헤어디자이너, 학원교사, 농부, 도창초등학교, 매화초등학교, 매화중학교, 매화고등학교, 매화노인대학 모든 학생이 도서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호조별 쌀이 차지고, 매화동 술이 허끝에 착 달라붙고, 매화동 빵이 영양가 있으면 매화도서관이 북적여야 한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고 주민자치위원 사업계획이 신선하려면,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동네가 되려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도서관 문이 달도록 드나들어야 한다.

도서관 가는 길은 멀어야 한다.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어야 한다. 직접 가지 않고 에둘러 가는 길이어야 한다. 집에서 나와 바로 찾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룻길에 바로 들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들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내를 건너고 산을 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난 뒤에 찾아가야 한다. 특별히 어린이에게는 더욱 먼 길이어야 한다. 민들레 엉겅퀴 애기똥풀 달맞이꽃과 먼저 인사하고, 가물치 뱀장어 미꾸라지 붕어 피라미 송사리를 먼저 건드리고, 송어 망둥이 장대 농계를 먼저 만나고, 수리 꿩 비둘기 참새를 먼저 쫓아다니고, 소 돼지 닭과 먼저 놀고, 엄마 아빠 언니 오빠 형 누나 친구 동네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나서야 도착하는 곳이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주옥같은 말이 있다. 독이 될 수도 있는 말이다. ‘아는 만큼만 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지 마라. 책과 놀아라. 책과 사귀고 책과 살아라. 책과 사귀어 주고 책과 놀아줘라. 책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의 유혹에 응답하라. 책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책이 이끄는 세계로 여행하라. 낡은 책을 버리고 새 책을 써라. 스스로 책이 되라.

단 오

송운초등학교 4학년 3반 신지민

저는 단오날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중 하나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나 추석처럼 가족끼리 모이지도 않고, 단오날 행사도 참석 못해 봤으며, 단오날에 먹는 음식도 못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여쭙어 보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오날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중 하나이며 중국, 일본 등에서도 지키는 명절입니다. 단오날은 음력 5월 5일이고 '수릿날', 또는 '술의날' 이라고도 합니다. 수리는 수레를 뜻하는데 옛날에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구였어요. 또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 떡을 '수리떡' 또는 '술의떡'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단오날 놀이로는 남자들은 씨름을 하였고,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단오날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윤기가 난다고 하여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또 부채를 선물하면서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민족은 해마다 단오날에 단오제나 단오굿을 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문화를 사라지게 하려고 억지로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오명절은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강릉단오제나 전라도 영광 지방의 법성포단오제를 지내며 전통을 지키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조상들이 물려주신 이런 기쁜 단오명절을 잊지 말고 계속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해마다 단오날이 되면 친구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부채도 선물하고 친구들과 그네뛰기도 하며 즐겁게 보낼 것입니다. 또한 단오날에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라는 것을 하는데 대추나무의 가지를 쳐 주거나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으면 가을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방학 때 저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꼭 대추나무 시집보내기를 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단오를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래산에서 부처님 만나다

시흥초등학교 5학년 5반 최민준

일요일 아침 엄마께서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셨다. 내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보니 엄마와 아빠는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 나는 밥을 먹는 중 마는 등하고 따라나섰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소래산이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가족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새소리도 들리고 청솔모도 보였다. 그런데 청솔모는 우리가 무섭지 않은가보다. 과자를 던져주니 쫓르르 달려와 과자를 물고 도망갔다.

한참을 걷다보니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기 시작했다. 그때 눈앞에 커다란 바위가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뭐지?’ 하고 봤는데 거기엔 커다란 부처님이 새겨져있었다. 너무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았다. 표지판을 보고서야 그것이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애상은 서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균형 잡힌 신체에 화려한 옷차림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얇은 선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며 기법이 우수하여 2001년 9월 21일에 보물 제1324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표지판 내용을 읽어보니 부처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산 정상에 오르니 바람도 시원하고 기분도 상쾌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부처님 생각이 났다. 바람에 깎이면 어떡하지?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어쩌면 부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이 마애보살입상이 계속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포동의 은행나무

서해고등학교 1학년 8반 김하은

달과 과일이 여물어 가는 무렵, 할머니 맥에 가면 나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을입구의 넓고 풍요로운 나무였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날 기다려준 그 나무. 땀별을 가려주기도 하고, 그늘에 앉아 쉬게도 하며 언제나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나무였다.

시골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만 알았던 그런 나무가 내가 사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포동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포동으로 그 은행나무를 만나러 갔다.

오랜 기간 혹독한 고난을 겪은 세월의 흔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더해갈수록 더 성장해가는 장엄한 모습에 나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동시에 시흥의 오늘과 미래를 보았다.

20m로 솟은 기상, 3m 정도 높이에서 가지가 갈라져서 동서로 20m, 남북으로 20m 정도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3m 둘레의 단단한 몸통이 뿌리와 한 몸이 되어 그 거대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시흥이란 하나의 뿌리 안에서 갈라져버린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조화롭게 엮여 단단하고도 거대한 하나의 시흥을 만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였다.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풍요해질 시흥의 미래를 보는 듯 든든하였다.

포동의 당제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과 7월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무 밑에서 당제를 지내면서 풍요와 안정을 빌어 왔다고 한다. 그 나무를 믿었기에 각자 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모두 한 마음처럼 나무에게 말했을 것이다. 또한 이 나무는 유독 크고 아름다워 바다에 어로로 나간 어부들이 이 나무를 항해의 표지로 삼았다고 한다.

현대 또한 마찬가지다. 시흥이란 거대한 나무를 믿고 그 앞에서 단결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행동할 때,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시흥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앞길을 밝혀주는 항해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시흥 뻗어가는 땅, 앞으로 시흥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기운에 중심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흥문화원 문화강좌안내



● 전통강좌

프로그램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시조창	월 11:10~12:40	3월 3만원	박일엽
경기민요	목 13:00~14:30	3월 4만5천원	문운자
서예	화 10:00~12:00	12주 6만원	전남훈
월미풍물놀이	화 19:00~20:30	3월 3만원	김원민
시흥향토민요와 서도소리	월 12:40~14:10	3월 6만원	박일엽
한지공예	금 10:00~12:00	3월 3만원	신은경
한국무용 (초,중급)	수 14:00~15:30(초) 10:00~11:30(중)	3월 6만원	전종건

● 음악강좌

프로그램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기타교실	A반 수 10:00~12:00	12주 6만원	최권열
	B반 수 18:00~20:00		
노래교실	월 10:00~11:30	3월 3만원	이희제
드럼	금 16:30~17:30(초) 15:20~16:20(중)	12주 6만원	오현식
색소폰	수 19:00~20:00	12주 6만원	남궁기문
쥬마밴드	목 10:00~11:30	12주 6만원	최진영

● 건강강좌

프로그램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요가	월, 수 12:00~13:30	12주 6만원	최인숙
라틴,라인댄스	금 10:30~12:30	12주 9만원	차심순

● 생활강좌

프로그램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손뜨개	화 10:00~11:30	3월 6만원	이수미
나만의 소품 만들기(북아트)	월 14:00~16:00	12주 6만원	김석류

● 어린이 및 청소년 강좌(교재비,재료비별도)

프로그램	강의시간	수강료	강사
기타교실	토 13:00~14:00(초급) 토 14:00~15:00(중급)	12주 6만원	최권열
종이접기	토 13:30~14:30	12주 4만5천원	이상분
주산 및 암산	토 14:30~15:30	12주 4만5천원	오경화
동화발레	목 16:10~17:00	12주 6만원	김수민
어린이발레	목 17:10~18:00	12주 6만원	김수민
드럼	금 17:30~18:30	12주 6만원	오현식
책 속으로 쓱쓱	화 15:00~16:00	12주 6만원 (초등 1~2학년)	김은경
현장답사 (내고장 바로알기)	토 10:00~12:00	6회 9만원 (초등3~4학년)	하영선



문의전화 : 317-0827 / 0821



시흥문화원

시흥시 하중동 875-1 조은프라자 4층
시흥문화원 사무국 TEL. 031-317-0827